주체90(2001)

6.15주간

6.15Weekly

제26호 (12월 14일~12월20일)



노작 -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2002년 남북관계
일대 비약을 준비하자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새로운 모색

≪완전개방형 예비선거제≫와 ≪통합진보정당의 창당≫을 제안하며 (민주노동당)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26호 (12.14~12.20)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북과 남 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 측 대표들과 한 담화

1972년 5월 3일,11월 3일



1.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나는 오늘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분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같은 동포끼리 이처럼 만나고 보니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당신이 민족의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무릅쓰고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용감하고 대담한 행동입니다. 남조선당국이 북과 남 사이의 정치회담에 참가할 결심을 가지고 당신을 대표로 파견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지난해 8월 6일에 한 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내가 연설한 다음 며칠 지나서 남조선 측이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회담을 하자고 응해 나섬으로써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예비회담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실 머리로 하여 북과 남 사이에 고위급정치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격폐되어 있던 북과 남 사이에 접촉과 대화의 문이 열리고 고위급 대표들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으로 됩니다.

지금 온 민족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지 못하고 분열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열강들의 농락물로 될 수 있으며 두 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질 수 있습니다.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언어와 문화생활의 공통성입니다. 한 핏줄을 이어 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말과 글이 다르고 문화와 풍습이 다르면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다보니 벌써 북과 남 사이에 말도 달라져 가고 문화와 생활양식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분열이 오래 가면 갈수록 언어와 생활양식에서의 차이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해방 후 북반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글자개혁을 하자고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조국이 통일되지 못한 조건에서 글자개혁을 한다면 조선민족이 두 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언어학자들에게 글자개혁을 하려면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하여야지 그전에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조국이 분열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글자개혁을 하면 북과 남이 서로 다른 글자를 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민족은 두 개의 민족으로 완전히 갈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이 두 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으로 될 수 있습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 대 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첫째로,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외부세력에 의존하여 가지고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내정문제입니다.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수치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외부열강들의 그 무슨 보장을 받아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원래 제국주의 열강들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로 단결되면 통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열되는 것을 좋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문제를 열강들에 의존하여 풀려고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접촉하여 대화를 하면 능히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열강들의 힘을 빌겠습니까.

우리는 조선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외부세력도 조선의 내부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외세의 간섭 밑에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염원과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오직 조선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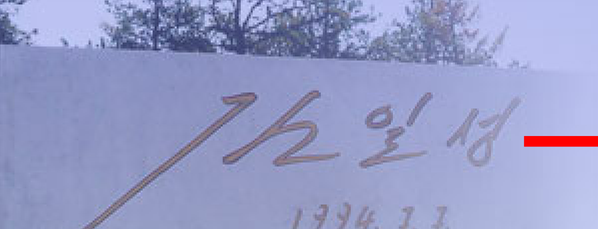
당신이 남조선당국도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며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미국이나 일본의 앞잡이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면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나는 우리 일꾼들에게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 먹는다고 늘 말합니다. 사람이 자주적인 존재로 되려면 남을 덮어놓고 숭배하는 사대주의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리적으로 큰 나라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우리 사람들 속에 역사적으로 사대주의가 많았습니다. 사대주의는 해방 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기간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꾸준히 벌여 왔습니다.

해방 후에 있은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방직후에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대주의에 물 젖은 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때 서울에서 박헌영이라는 자는 우리 나라를 다른 나라의 가맹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얼빠진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주었으며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박헌영의 말을 듣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다시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나 않겠는가 하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민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우리는 소련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닌 조선민족의 이익에 맞는 조선식의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전후에 우리가 농업협동화방침을 내놓았을 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업이 발전된 유럽나라들에서도 아직 농업협동화를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업이 다 파괴된 조선에서 어떻게 농촌경리를 협동화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사대주의자들은 큰 나라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나는 레닌이 한 말을 가지고 그들을 논박하였습니다. 레닌은 농민들의 토지와 농기구를 단순히 통합한 공동경리도 개인농경리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은 레닌주의에 맞는 것이며 우리 나라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어떻게 공업화를 한 다음에 농업협동화를 하는 것만이 협동화의 옳은 길로 될 수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농민들은 협동화를 하여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살아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촌경리가 혹심하게 파괴되었으며 농민들에게는 부림 소도 농기구도 얼마 없었습니다. 부농들의 처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는 농민들이 자원성의 원칙에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힘을 합쳐 공동으로 경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원래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옛날부터 동네에서 누가 잔치를 하면 모두 부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며 그 집에 찾아가서 축하하여 주고 같이 즐기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우리 나라에 비록 현대적 농기계는 얼마 없었지만 생활 자체가 농업협동화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농민들이 협동화방침을 적극 지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경리의 협동화를 짧은 기간에 비교적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 데서도 사대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얽매일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민족경제를 보호하는 원칙에서,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료를 주어야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원료를 주고 우리의 기계를 사가는 조건에서만 그 나라의 기계를 사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아직 기술발전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조건에서 발전된 나라들과의 경제관계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들에 계속 원료를 대주고 가공품을 사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구멍이 숭숭한 빈 산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구멍이 숭숭한 빈 산을 넘겨 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자립하기 위하여 참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높일 수 없으며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건설분야에서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사대주의는 문학예술분야에서 매우 혹심하게 나타났으며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작가, 예술인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은 유럽의 문학과 예술을 숭배하면서 조선사람의 비위에 맞지도 않고 조선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한때 시인들은 뿌슈낀을 숭배하였고 음악가들은 챠이꼽스끼를 숭배하였으며 가극을 하나 만들어도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사대주의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일부 미술가들은 풍경화를 그려도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산천을 그렸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내가 어느 한 병원에 가보니 그 병원의 벽에는 큰 나무 밑에 흰눈이 깔려있고 그 위로 곰이 기어다니는 것을 그린 씨비리의 풍경화가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에는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하여 이름난 산들이 많은데 왜 조선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려 붙이지 않고 저런 그림을 붙였는가, 저런 그림을 그려 붙여서 인민들을 교양 하는데 무슨 의의가 있는 가고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조선민족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조선민족은 앞으로도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산에서 살아야지 씨비리나 유럽에 가서 살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학예술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들을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국제주의라는 것도 애국주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국제주의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조선사람은 유럽식 예술작품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예술작품은 감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조선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며 조선사람의 민족적 정서에 맞지 않는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이란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 이론투쟁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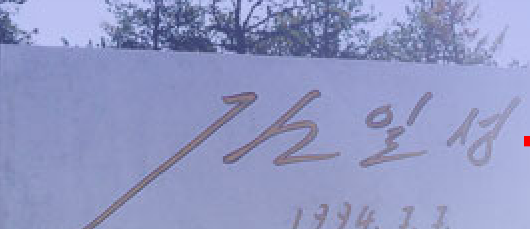
둘째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북과 남 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대 단결을 도모하겠는가 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하려면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야 하며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려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주의 사상을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승공통일》을 하겠다고 하거나 공산주의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반공》의 구호를 버려야 합니다.

북과 남은 단결을 방해하는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공통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지난날의 일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시비를 가르려 한다면 북과 남 사이의 간격은 점점 커질 것이며 조국통일은 더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조국과 민족 앞에 엄중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이 진심으로 단결하려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그러한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최근에 남조선당국자들이 ≪자조≫, ≪자립≫, ≪자위≫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자조≫, ≪자립≫, ≪자위≫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정책과 공통되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북과 남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하나하나 찾고 그에 기초하여 단결을 이룩한다면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에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과 남 사이에는 차이나는 것도 많고 서로 오해하고 불신임하는 점도 많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불신임하는 조건에서는 민족의 진정한 단합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한가정도 부부 사이의 두터운 신임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서로 신임하지 않으면 같이 살지 못하며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북과 남은 서로의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려면 북과 남의 당국자들과 여러 인사들이 자주 접촉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무슨 문제든지 다 내놓고 진지하게 의논한다면 오해를 풀 수 있으며 신임을 두터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이번 대화를 통해서도 벌써 북과 남 사이에 적지 않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대화를 할 바에는 좀 일찍이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자들이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남조선당국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다시 끌어들이는 일도 없을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꼭 믿어달라고 재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고 지난 시기에 가지고 있던 불신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남침≫하려 하며 남조선을 ≪적화≫하려 한다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남조선을 ≪적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천명하였지만 오늘 이에 대하여 당신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합니다. ≪적화≫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남조선을 ≪적화≫하려 하지도 않거니와 우리가 ≪적화≫하려 하다고 하여 남조선이 ≪적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난 시기에 당신들이 ≪남침≫이요, ≪적화≫요 하면서 품고 있던 오해를 이제는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오해를 풀고 신임을 두터이 해나가면 비록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제도와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결하고 합작하려면 서로 존중하여야지 비방 중상하여서는 안됩니다. 지금처럼 서로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는 일을 계속하면 북과 남이 가까워질 수 없으며 오히려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은 서로 욕질을 하면서 비방 중상하는 것부터 없애야 합니다.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을 실현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고 발전된 중공업이 있습니다. 남조선은 그전부터 경공업토대를 일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하고 유무 상통하면 당면하게 나서는 경제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면 우리 나라는 일본이나 그밖에 발전되었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단결을 시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입장에 선다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도 친선관계를 맺고 좋게 지내는데 하나의 핏줄을 이은 같은 민족끼리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단결하고 합작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가, 민족주의를 신봉하는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가 하는 것은 민족적 대 단결을 이룩하는데 장애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의 자본가들은 거의 다 민족자본가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부터 민족자본가들에 대하여서는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왔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민족주의자들과 민족자본가들을 포함한 남조선의 각계각층과 단결하고 합작하여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북과 남 사이에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갈라진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열강들도 자기들끼리는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앞으로 한 세대동안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돌아보고 나서 어떠한 장벽도 세계의 사람들을 갈라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닉슨의 중국방문결과에 발표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공동 콤뮤니케를 보면 미국은 이때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던 평화에 대한 5개 원칙을 승인하였습니다. 미국이 평화에 대한 5개 원칙을 승인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미국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행동에 옮기는가 하는 것은 두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은 그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닉슨이 중국에 가서 한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로동신문≫은 닉슨의 중국행각을 논평하면서 닉슨이 만리장성을 돌아보고 한 말이 진심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 나라의 한복판에 만들어놓은 군사분계선을 없애려 하지 않으며 ≪엠피≫라고 쓴 쇠바가지를 쓰고 거들거리는 미군병사들을 걷어가려하지 않는 가고 썼습니다. 나는 이 논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의 열강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에 싸움을 하지 않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줄여야 합니다. 나는 북과 남의 군대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공개연설에서 여러 번 천명하였습니다.

군대를 줄여야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군사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북과 남의 군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하여 우리 나라를 북과 남으로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도 없애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많은 무력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군사분계선일대에 있는 어떤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잘못하여 한곳에서 총소리를 내면 쌍방이 서로 불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앞으로 북과 남이 잘 협의하여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하여 담보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군사분계선일대에 있는 쌍방의 군사시설들과 군사인원들이 필요없게 될 것이며 군사분계선 자체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과 남이 각각 자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북과 남은 힘을 합쳐 외래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에 대한 외래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자위입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에 대한 외부세력의 침략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해에 무장간첩선 ≪푸에블르≫호를 침입시켰을 때 우리의 인민군해병들은 그 간첩선을 나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국을 보위할 사명을 지닌 인민군대의 응당한 자위적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놈들은 우리에게 용서를 빌 대신 오히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숱한 무력을 동해일대에 끌어다 놓고 우리를 위협 공갈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었으며 엄중한 도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놈들의 위협과 압력에 조금도 굽어들지 않았습니다. 미국놈들이 숱한 무력을 끌어들이면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놈들과 싸울 결심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우리가 위협과 압력에 굽어들지 않자 미국놈들은 싸움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그때 만일 미국놈들이 싸움을 일으켰더라면 우리 민족은 또 한차례의 전쟁을 겪게 되었을 것이며 오늘 이렇게 북과 남의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평화적인 회담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외래침략자가 우리 나라를 침략한다면 북과 남은 힘을 합쳐 침략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전체 조선민족이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떤 침략자도 능히 쳐 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없애고 긴장상태를 완화함으로써 조선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담화에서 북과 남 사이의 중요한 공통점을 찾았으며 가장 원칙적인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하며 갈라진 조국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할 데 대한 세가지 원칙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대하여 당신도 찬성하고 또 남조선최고당국자도 찬성할 것이라고 한 것만큼 우리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담화를 통하여 북과 남 사이에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이 합의된 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북과 남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견해의 일치를 본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3대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이 3대 원칙을 기초로 삼고 나가겠다고 맹세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다른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빨리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 합의된 조건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원칙을 구현하여 온 민족을 하나로 합치고 조국을 통일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는 어디까지나 조국통일 3대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찾아야 합니다. 북과 남이 자주, 민족 대 단결, 평화통일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깊이 연구하고 진지하게 협의하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방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사이의 정치협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접촉과 대화를 더 활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북과 남의 고위급 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회담을 진행함으로써 정치협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정치협상이 시작된 것만큼 앞으로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당신이 먼저 평양에 왔으니 그 답례로 다음 번에는 우리 대표를 서울에 보내려고 합니다. 북과 남의 대표들이 여러 번 오고가는 과정에 서로의 신임이 두터워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되면 최고위급의 회담을 실현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과 남의 대표들이 자주 오고가며 대화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해방 후 거의 30년 동안이나 갈라져 있으면서 생긴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한 두 번의 접촉과 대화로써 다 없앨 수 없습니다. 한 두 번 만나 협의하여 가지고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하여 북과 남이 서로 오해하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고 중요한 공통점을 찾았지만 조국을 통일하려면 아직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오직 북과 남의 대표들이 자주 접촉하고 진지하게 협상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에서는 서로 오해하고 있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의견이 있는 것은 털어놓고 의논하여야지 서로 딴 주머니에 감추어 두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비록 자그마한 오해라도 생기면 제때에 내놓고 협의하여 풀어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는 어디까지나 서로 이해를 깊이하며 공통점을 찾고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방도를 찾는데서 우리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은 어디까지나 공통점을 찾고 단결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논쟁으로 되어야지 분열을 위한 논쟁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옳게 조절하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기 위하여 북과 남의 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제적인 조절사업을 하여야지 그저 일반적인 대화만 하여 가지고는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북과 남의 당국이 각각 임명하는 고위당국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필요한 성원들을 망라하여 조직하면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평양과 서울 사이를 잠깐 사이에 오고 갈 수 있으므로 당신들이 평양에 오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서울에 가기도 하면서 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위원회를 조직하면 거기에서 조절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과 남 사이의 관계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협의하여 조절하여야 합니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서로 자기 의사를 강요하려 하지 말고 제기되는 문제를 단결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해를 같이 할 때까지 진지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평양과 서울 사이에 직통전화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화를 통하여 수시로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국통일에 방해되거나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자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인차 전화로 알아보고 협의하여 제때에 풀어야 합니다.

이번에 북과 남 사이에 합의된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은 전체 조선민족이 공동으로 실현하여야 할 통일강령으로 됩니다. 나는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세상에 선포하여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인민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는데도 좋고 세상사람들에게 조선민족의 단결을 시위하는데도 좋습니다. 북과 남이 합의한 통일강령을 발표하면 국내외의 모든 동포들이 우리가 분열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족 대 단결의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일치한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며 각계각층 인민들이 커다란 고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발표하면 세계인민들은 조선민족이 단결된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외부세력들은 조선민족을 영원히 분열시키려 하여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발표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대화과정에 토론하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이 서울에 돌아가 남조선당국에서 토론하고 북과 남의 대표들이 다시 만나 합의한 다음에 발표하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모처럼 평양에 찾아온 것만큼 하루 더 묵으면서 우리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당신의 행동은 애국적인 소행입니다. 사람은 애국자가 되어야지 매국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란 하루를 살아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로운 일을 하여야 영예스럽고 사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이번 회담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앞으로 평양에 자주 오기를 바랍니다.

2.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할 데 대하여

나는 남조선 측 대표를 다시 만나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남조선 측에서 대표가 혼자서 왔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같이 왔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이와 같은 접촉이 잦게 되면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는 일정한 전진이 있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만나지 조차 못하던 것이 오늘은 대표들이 오고가며 만나고 있으니 이 자체가 벌써 하나의 전진인 것입니다. 북과 남의 대표들이 서로 오고가며 자주 만나 면목도 익히고 의견도 나누면 조국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분열을 지속시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둘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둘로 갈라져서는 안됩니다. 조선사람은 오랜 옛날부터 한 강토 위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같은 핏줄을 이어받았으며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민족성도 강하고 민족적 자존심도 높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36년 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내선일체≫요 뭐요 하면서 조선사람의 성까지 일본식으로 고치는 놀음을 하였지만 끝내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오늘에 와서 어떻게 둘로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민족의 분열을 허용하여서는 안되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은 북반부동포들이나 남반부동포들이나 다 같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조국통일을 염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찾아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조선언론계에서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도 ≪대화 있는 대결≫이요, ≪대화 있는 경쟁≫이요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결이나 경쟁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서로 승부를 겨룬다는 뜻인데 승부를 겨루면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과 경쟁을 한다면 몰라도 같은 민족끼리 대결하고 경쟁하여서는 안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대결하고 경쟁하면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대결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합작하여야 합니다. 합작이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이제는 합작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북과 남은 대화를 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합작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면 그 과정에 민족의 힘이 더욱 커지고 조국통일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질 것입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여야 우리 앞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경제분야에서부터 합작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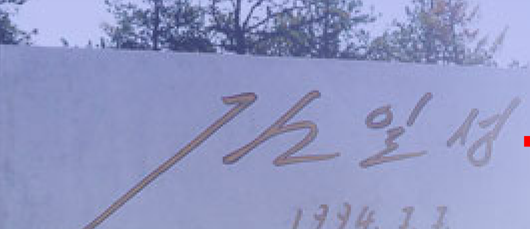
북과 남이 경제적 합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해 나가야 서로 오해를 풀고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신임한다고 하여서는 누가 무슨 속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지 일을 같이해 나가느라면 오해하고 있던 문제도 풀리고 신임이 두터워질 것이며 민족적 단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많은 인구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하면 인민생활문제도 더 잘 풀 수 있고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경제적으로 합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북과 남은 지하자원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고 분업과 교역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연구성과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지하자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쇳돌이 무진장합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자원을 많이 약탈하여 갔다고 하지만 그들은 수박껍질을 핥다가 간 셈입니다. 우리의 탐사일군들은 일제놈들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 곳에서 많은 쇳돌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천일대에서도 몇 억 톤의 쇳돌을 찾아냈고 황해남도에서도 몇 십억 톤의 쇳돌 매장량을 확보하



였습니다. 풍산을 비롯한 북부내륙지대에도 굉장히 많은 쇳돌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탐사일꾼들이 초보적으로 찾아낸 쇳돌만 하여도 100억 톤 이상이나 됩니다.

우리 나라의 쇳돌은 품위도 매우 높습니다 . 우리 나라 쇳돌의 철 함유량은 다 35%이상입니다. 우리 나라의 쇳돌은 세계적으로도 질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쇳돌이 부러워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북반부에는 쇳돌 뿐 아니라 연, 아연, 동을 비롯하여 다른 광물자원도 많습니다. 일제놈들은 우리 나라에 니켈이 전혀 없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자체로 니켈을 찾아내어 여러 가지 합금강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공업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원료를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사올 수도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원료를 두어두고 먼 다른 나라에 가서 사오겠습니까.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우리 나라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사오지 않고도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의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기계공업을 발전시켜야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으며 오늘 우리의 기계공업은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철로 기계를 만들어 팔아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도 평등한 원칙에서 가질 수 있고 인민들의 생활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동차, 트랙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계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기계를 사가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수산자원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나라 동해에는 해마다 500만~600만 톤의 명태가 떼를 지어 밀려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추정한 숫자이지 실지로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똑똑히 알지 못합니다. 명태가 한창 밀려올 때에는 명태 떼의 폭이 3,000메타나 되고 길이가 5,000 메타나 되며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명태가 떼를 지어 밀려오지만 우리는 지금 기껏 하여 60만 톤밖에 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밀려온 명태를 10%밖에 잡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명태는 50%까지 잡아도 그 자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동해에서 해마다 명태를 250만 톤씩 잡아내도 일없습니다. 남북의 어민들이 힘을 합쳐 함께 물고기잡이를 한다면 많은 명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민들을 다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이 경제분야에서 분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산하고 남조선에서는 무엇을 생산한다는 식으로 분담하여 경제를 발전시켜도 서로 부담이 많이 적어질 것이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문화분야에서도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문화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하여야 단일민족으로서의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민족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언어학분야에서 합작을 실현하여 우리의 민족어를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지금 북과 남의 사람들이 접촉하여 말을 하여도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마디들이 적지 않으며 그것으로 하여 서로 오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언어생활에서 차이가 커 가면 민족의 분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생활의 차이로 하여 우리 민족이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지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은 합작하여 북과 남 사이에 말과 글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조절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협의하면 우리 나라 말과 글의 우수성을 살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은 과학분야에서도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재능 있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과학분야에 대하여서는 남에 있는 학자들보다 북에 있는 학자들이 더 잘 알 수 있고 또 어떤 과학분야에 대하여서는 북에 있는 학자들보다 남에 있는 학자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의 학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치면 과학연구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공업국가로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육분야에서도 합작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체육분야에서 합작을 실현하면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육인들은 단독으로 국제경기들에 나가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군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단일 팀을 구성하여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나간다면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조선민족은 투지가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투지가 강하다는 것은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기술로써 이기는 경우보다 투지로써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적인 체육경기들에 북과 남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뽑아 단일 팀을 구성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합작할 뿐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합작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합작과 문화적 합작은 마땅히 정치적 합작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합작하여야 경제분야에서의 합작도 잘 할 수 있고 문화분야에서의 합작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물을 고찰하는 방법과 우리가 사물을 고찰하는 방법이 다른 것만큼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매개 문제를 하나씩 떼여놓고 고립적으로 보지마는 우리는 모든 사물이 서로 연관되어있고 호상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서로 연관되어있고 호상 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것은 사회의 운동법칙입니다. 어떠한 사회적 문제도 다른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옳게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문제를 풀려면 경제, 문화 문제를 풀어야 하고 경제, 문화 문제를 풀려면 정치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북과 남이 정치적으로 합작하지 않으면 경제, 문화 분야에서 합작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회담에서 토의되고 있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찾는 문제만 보더라도 얼핏보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 같지만 남북사이에 정치적 불신임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간단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북적십자회담 때 남조선에서 들어온 대표들 가운데 북반부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꾼들이 그에게 당신의 친척이 여기에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는가고 하니 그는 후에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북반부에 있는 친척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북반부에 있는 친척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북반부에 친척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힘만으로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제대로 찾아줄 수도 없고 서로 자유롭게 만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찾는 문제가 원만히 풀리자면 반드시 남북 사이의 정치적 합작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비를 줄이는 문제도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여야 풀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남북공동성명에는 북과 남 사이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조국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할 데 대한 문제가 밝혀져 있습니다. 남북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데 대하여 공동성명은 발표하였지만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로부터 쌍방이 서로 전쟁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대포를 계속 사들이고 있고 우리는 자체로 대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군대가 많으며 인민들의 군사적 부담이 큽니다. 외래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방위하는데는 남북의 군대가 모두 20만 명만 있어도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합작하면 북과 남 사이의 신뢰를 깊게 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명 정도로 줄여 인민들의 군사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여야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것만큼 우리는 경제적 합작과 문화적 합작을 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는 데로 나가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합작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합작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남북조선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으로 합작하지 못할 조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무서운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주의는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전후시기부터 입니다. 나는 1955년 4월에 발표한 테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전후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제기된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도시와 농촌이 잿더미로 되고 공업과 농촌경리가 여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과정에 빈농과 수공업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의 중농과 부농도 거의 다 파산되었으며 도시의 상공업자들도 파산몰락하여 수공업자나 소상인과 같은 처지에 굴러 떨어 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들은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살아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으며 협동화를 절실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도시와 농촌에서 개인경리를 협동화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자원성의 원칙에서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촌의 부농과 도시의 개인상공업자들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청산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에 망라하여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후에 부림 소와 농기구가 모자라고 노력이 부족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업협동화를 실현하여 농민들의 힘을 합침으로써 관개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조선사람들이 북반부에 들어와서 현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 사회주의 제도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정치적으로 합작하고 단결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연방제는 지금 남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제도와 북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대표들, 저명한 인사들이 광범히 모여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민족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토의하여 결정하며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활동하면 연방제가 될 것입니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북연방제가 실시되면 북과 남 사이의 연계와 합작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대외적 권위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대외적으로 두 개 나라로 활동하여야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북과 남이 제각기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방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더 논의하면 보다 좋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합작을 실현하자고 하는데 대하여 당신들도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서로 오해하고 불신임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쌍방이 서로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야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빨리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미국군대를 내보내고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큼 당신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조선 측이 우리를 오해하고 불신임하는데 있습니다. 같은 동포끼리 만났는데 오해하는 문제가 있으면 다 털어놓고 말하여야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것은 딴 주머니에 감추어두고 미리 준비한 연설문이나 읽고 가서는 오해를 풀 수 없습니다. 오해를 풀려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합작을 실현하려면 또한 서로 욕질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비방 중상하는데 대하여 인내성있게 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진심으로 우리와 합작하려고 한다면 반공선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도 남조선 측과 합작하려고 하는 것만큼 당신들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남조선 측 대표를 만났을 때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옳게 조절하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하여 북과 남의 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조절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고 잘 운영하여야 합니다.

조절위원회는 빈말공부만 하지 말고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옳게 조절하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착실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조절위원회가 구성되면 신임의 표시로 서로 군대를 줄이고 정치범을 석방하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과 남 사이의 문을 열어놓은 이상 닫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문을 닫으면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인민들도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과 남 사이의 문을 열고 일단 일을 시작한 바에는 솜씨를 보여 조선민족의 영예를 온 세계에 떨쳐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빨리 실현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통일문제를 질질 끌어서 좋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합니다.

세기와 더불어

1. 조선인민혁명군

≪세기와 더불어≫ 제3권 제9장 제1차 북만원정



백성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는 곳에 군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초보적인 정치상식이다. 모나코와 같은 특수한 몇몇 나라들을 제외한 세계의 대소국가들은 거의 모두가 자체 방위를 위한 민족군대를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약소국가들이 식민주의자들의 총 몇 방에 자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온 것은 군대가 없었거나 약한 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구한국의 군대도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괴멸되었다. 내란을 평정할 때는 그렇게도 그악스럽던 군대가 외적 앞에서는 대포도 변변히 쏘아보지 못하고 삿대질을 얼마간 하다가 주저앉아버렸다. 우리 나라가 망한 데는 국정이 부패한 데도 있었지만 군력이 쇠약한 탓도 있었다.

망한 나라를 찾아보려고 조선의 선각자들은 독립군을 조직하였다. 국권을 강탈당한 민족이 그 국권의 수복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이 독립군을 조직하여 여러 해 동안 무력항쟁을 해왔다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유격대를 창건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철추를 내렸다. 소규모의 비밀유격대로 항일장정의 첫걸음을 떼었던 우리의 무장대오가 이제는 간도 모든 현들에서 연대 규모로 발전하였다.

동기≪토벌≫의 포화가 멎은 뒤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른 지방의 유격대 지휘관들과 함께 그 방도를 심중하게 상론하였다. 각 현에 조직되어 있는 유격대의 연대들을 하나의 군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반일인민유격대 자체 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보나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 될 초미의 과제로 나섰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것은 장성강화된 유격부대들에 대한 통일적 지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투력을 높이며 일제의 대규모적인 공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혁명군 문제가 처음으로 우리의 논의에 오른 것은 명월구회의 때였다. 그대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전망 문제를 논하면서 유격대를 일단 대대 규모로 조직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질량적으로 발전시키다가 때가 되면 대부대 혁명군으로 개편하자고 결의하였다. 물론 이 문제가 회의에서 기본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혁명군대의 장래와 관련된 이 문제를 두고 대표들은 회의장 안팎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였

세기와 더불어

다.

대부대 혁명군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는 오빈과 박훈이었다.

식민지나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항쟁무력은 처음에 작은 규모로 조직되는 것이 상례이다. 소규모의 역량으로 무장대오를 조직한 다음 그것을 밑천으로 살금살금 역량을 확대해가다가 조건이 성숙되면 부대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군을 내온다. 멕시코에서 망명을 끝내고 쿠바로 돌아온 초기의 카스트로 부대는 82명이었다. 그들 중 살아남은 12명이 7자루의 총을 가지고 시에라 마에스트라산에 들어가 대오를 늘리고 힘을 키우다가 아바나에 입성하여 바티스타 친미독재정권을 벼락같이 무너뜨렸다.

1933년 하반기부터 간도에서는 유격대역량을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단일화할 데 대한 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상정되었다. 그것은 적의 동기《토벌》을 격파하기 위한 마촌작전과 수천 수만 킬로미터의 판도에서 영웅적 방위전이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하였다.

작전을 총화하는 자리에서 중대 상호간의 협동 문제, 부대의 통합 문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한 것은 소왕청 관내에서 9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시종일관 방위전에 참가전에 2중대장이나 3중대장이 아니라 작전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흥권중대장이었다. 한흥권은 마촌작전과 관련하여 자기네 중대가 받은 임무는 로야령을 넘어 동만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견제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적과 접전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주력부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고 토론하였다. 말하자면 적이 유격근거지를 《토벌》할 때 자기가 적의 뒤통수를 쳐야 하겠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때 그 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흥권의 토론은 자기비판적인 것이었으나 그에게는 사실 비판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훌륭한 지휘관이었다.

그러면 그가 왜 자기를 의리도 없고 혁명성도 없고 통찰력도 없는 지휘관이라고 타매하였겠는가. 그가 총화모임에서 강조하려고 한 것은 요컨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흥권이 자기를 근시안이라고 자탄할 때 나는 나대로 그를 지도하는 상급의 자각을 가지고 마촌작전이 남긴 심각한 교훈을 도출해냈다. 그것이 바로 수시로 변화되는 전투상황에 맞게 중대 상호간의 협동을 원만히 조직하자면 그를 총괄할 만한 지휘, 참모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자면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훈이었다.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겠다는 그들의 요구는 결국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여 정연한 군체계를 갖춰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적의 동기《토벌》을 분쇄하기 위한 방위전의 전 과정에서는 각 지방에 산재하고 있던 유격부대들이 익측과의 협동적 연계나 원조도 없이 고군독전하였다.

화룡현의 경우를 보면 적들이 어랑촌 유격근거지에 대한 《토벌》을 시작한 것이 1933년 11월 초라고 한다. 이 첫 《토벌》은 강력한 타격을 받고 일단 좌절되었다가 11월 말부터 단 3일 동안 진행된 2차 《토벌》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싸움의 전부라고 한다. 숫자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어랑촌에 대한 《토벌》은 소왕청에 대한 공격보다 보름 정도나 앞선 것으로 된다. 만일 이런 때 교전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다른 현의 유격부대들이 상호협동의 원칙 밑에서 적들의 배후를 타격한다면 어랑촌유격대는 한결 험한 싸움을 했을 것이었다.

연길현이나 훈춘현의 사정도 이와 대동소이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유격구마다 《토벌》을 당하는 시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각 현과 구에 있는 유격부대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단일한 지휘체계가 있고 참모기구만 있으면 모든 유격대들이 서로 손발을 맞추어가며 상호협력의 강력한 무기로 싸움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때늦게나마 시사해준다.

그런데 유격대에 대한 지도가 현과 구를 단위로 하여 실현되고 있던 당시의 조건에서는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것은 동기《토벌》 당시의 유격대 지휘체계가 현실적 요구에 수응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유격대의 지휘는 각급 당군사부가 하게 되어 있었다. 한개 현에 무력이 한두개 중대밖에 없던 유격운동의 초창기에는 전투도 작은 규모로만 하였으므로 현과 구를 단위로 하여 군대를 지휘하는 체계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유격대의 대오가 확대되고 적들의 《토벌》역량도 백 단위로부터 천 단위나 만 단위로 껑충 뛰어올라간 형편에서는 작은 전투만 골라가며 할 수도 없었다. 전투란 교전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적들이 역량을 끊임없이 증강해가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조건에서 우리도 맞불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적들이 사방에서 무슨 사단, 무슨 여단, 무슨 연대하며 무력을 긁어 모아가지고 대부대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힘을 합치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뿔뿔이 엎더 제가끔씩 뚱땅거리기만 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가? 큰 도시나 성시를 치러 갈 때에는 이 현, 저 현에서 인원들을 추려가지고 집중된 역량으로 적을 쳤는데 방어전에서는 왜 현별, 유격구별로만 싸워야 하는가?

이것은 마촌작전을 전후한 시기 나를 사로잡고 있던 생각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격운동은 그 내용과 규모에 알맞은 새로운 그릇을 요구하고 있었다. 우리 앞에는 현과 구들에 널려있는 무장부대들을 한 체계에 묶어세울 수 있는 전환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 요구를 가장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여 대부대 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요영구에 주둔하고 있던 4중대장의 편지도 같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4중대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마촌작전 총화에 참가하지 못하고 자기 중대의 총화내용을 편지로 써서 마촌에 보내주었다. 그 편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은 중대장의 전령병으로 일하던 오진우였다. 마촌작전을 총화하면서 나는 반일인민유격대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주진, 양성룡 등과 자주 협의하였다.

어느날 나는 양성룡이네 집에 가서 기타를 탔다. 내가 기타를 탄 것은 마음이 흥겹거나 편안해서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여 그 당시의 나의 심경은 대단히 울적하였다. 마촌작전은 비록 승리로 결속되었으나 유격구는 가슴을 파내려는 고통에 울고 있었다. 우리와 생사를 같이하던 수많은 얼굴들이 진토 속에 묻혀 일어나지 못하였다. 마지막 한 대의 서까래마저다 타버린 잿무지 위에서 집들을 다시 일떠세우고 생활을 새롭게 조직해 나간다는 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었다.

군사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 양성룡을 찾아갔는데 그도 침울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어젯날의 대대장은 《민생단》감투를 쓰고 구금되었던 것을 몹시 분하게 여기고 있었다. 우리가 보증을 서서 겨우 감옥신세는 면했지만 그는 복직

세기와 더불어

되지 못하였다. 그는 소왕청과 라자구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양식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토벌》에 아내와 어머니를 잃고 나서는 더 과묵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대부대 혁명군 조직에 대한 화제를 꺼내자 그는 대뜸 반색을 하면서 범상치 않은 열의를 보냈다.

《문제는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부대들을 통합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오.》

양성룡은 찬성, 불찬성이라는 말은 일어반구도 하지 않았지만 형식과 방법 문제를 상정시키는 방법으로 군조직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가 제일 걱정한 것은 반《민생단》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타적 기분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그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바로 거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충이 있었고 그러한 난점들을 용의주도하고 원만하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식의 원리와 자막대기로 재고 내려먹이던 《국제노선》이 득세하고 이른바 계급적 이익과 국제적 연대성의 이름 밑에 민족적 전통과 지향을 한마디로 민족주의적 편향으로 통렬히 공격하던 그 시기 남의 나라 땅에서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독자적인 무력건설 구상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 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진도 찬성하였다. 성격이 괄괄하고 대범한 주진은 내가 말을 꺼내기 바쁘게 격렬한 손짓을 해가면서 부대들을 통합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싸움을 해보자고 말하였다. 나는 큼직큼직하게 싸우자는 그 표현이 못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간도의 조선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한 호걸남아 주진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통쾌한 표현이었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부대들을 통합하여 독자적인 혁명군을 내오게 되면 《조선연장주의》 감투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감투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하루속히 일을 내밀자고 하였다.

동장영과 같은 사람도 우리의 구상을 지지하였다. 그는 동만에 조직되어 있는 반일인민유격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무장력이며 그 구성에서도 조선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 땅에서 조직된 것이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조선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장영의 이 평가는 조선혁명을 운운하는 것 그 자체가 민족주의로 범죄시되던 당시의 실정에서 아주 공정하고 진보적인 것이었다.

동장영도 정당하게 지적한 것과 같이 동만은 물론, 남만의 이홍광, 이동광, 북만의 허형식, 김책, 이학만, 최용건 등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만주지방의 당 건설에서 선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군건설에서도 개척자, 주창자, 영솔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을 이루고 있는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절대다수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이었다.

동장영은 군을 내오되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형식과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할 것을 권고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중 쌍방간에 다같은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 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당 파견원 반성위도 국제당 노선에 부합되는 정당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

왕청대대를 함께 이끌던 양성룡으로부터 후에 인민혁명군 독립 1사사장을 했던 주진, 동만특위와 동장영, 국제당 파견원 반성위에 이르기까지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반일인민유격대를 대부대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할 데 대한 방침을 인식하는데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통합개편된 무장력의 명칭 선택과 그 성격규정에서도 그들은 우리와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하였다.

우리는 1934년 3월에 정식으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투쟁목적에도 맞고 그것을 담당 수행하는 정치적 역량의 성격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초기에 동만의 일부 지역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공농유격대라고 명명한 것은 그 성격규정에서 계급성 일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방에 앞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웠던 우리 혁명의 성격은 물론,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주관한 동북혁명의 성격에도 맞지 않았다.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동만지방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각 현에 있는 유격대 대대들을 연대로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간도지방 유격대의 총 무력은 5개 연대에 달하였다.

각 연대에는 유격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사명으로 하는 정치부를 두고 작전, 정찰, 통신 임무를 담당한 참모부서와 피복, 양식, 군의 사업을 보는 후방처를 설치하였다.

왕청연대는 동만지방 연대무력의 시초로 되었으며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제 1단계 준비사업이 낳은 산아들 중 첫 번째 산아로 되었다.

항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데서 우리가 제 2단계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사단체계를 내오는 것이었다.

우리가 사단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마촌작전 과정에서였다. 5000명의 대군을 2개 중대역량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세계전쟁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소부대에 의한 적후교란전으로 유격구 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하면서도 줄곧 우리에게 군단은 몰라도 사단급의 무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몇 천 명쯤 되는 무력을 가지고 대포를 꽝꽝 쏘아대면서 대부대활동도 하게 되면 얼마나 성수가 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각 현들에 연대들이 이미 조직되고 또 그 역량도 빠른 속도로 불어가는 조건에서 사단을 조직하는 것은 한시도 지체시킬수 없는 최대의 과제였다.

우리의 목표는 조선인민혁명군 산하에 2개 사단과 1개 독립연대를 선차적으로 꾸리고 그 성과를 확대시켜 장차 수개 사단의 무력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연길과 화룡에 있는 연대들로 하나의 사단을 꾸리고 훈춘과 왕청에 있는 연대를 기본으로 다른 하나의 사단을 또 편성하기로 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새로운 당지도 기관으로 출현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군대 안의 당조직에 대한 지도와 함께 지방의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도 동시에 감당하는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무력의 담보가 없이는 지방당조직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종전까지는 지방당조직들이 군대 안의 당조직까지 지도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사업은 1934년 3월부터 5월 사이의 극히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다.

이 소식에 접한 유격구역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군대를 지원하고 도처에서 성대한 경축모임들을 준비하였다.

왕청의 여성들은 축기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고 공청에서

세기와 더불어

는 아동유희대 축하공연을 마련하였으며 여러 가지 체육경기도 벌였다.

연길의 삼도만 유격구역에서는 적 통치구역 대표들까지 참가한 1,000여 명의 군중대회와 시위가 있었다.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편성에서 조국광복의 앞날을 더욱 뚜렷이 확신하게 되었으며 군대와 일심동체가 되어 항일혁명전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굳은 결의들을 다졌다.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넓은 판도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부대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만일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지 않았거나 연대나 사단과 같은 대부대의 군사력을 제때에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암운에 덮인 조국을 밝히며 높이 타오른 보천보의 횃불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무송, 간삼봉, 홍두산, 이명수, 대홍단, 홍기하 등 국내와 만주 도처에서 적의 정예부대들을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은 연전연승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동기《토벌》에 이어 유격구를 위협하던 악명 높은 위공작전도 파탄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는 무력항쟁으로 기어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경우에 따라서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활동하였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동북이라는 명칭은 어느 한 나라를 의미하는 국호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역적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이었다.

우리가 조직한 인민혁명군이 《만주인민혁명군》이나 《중국인민혁명군》이 아니라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명칭으로도 활동한 것은 반만항일을 투쟁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던 중국 동지들에게 있어서도 적합한 것이었다. 결국 동북인민혁명군은 조선인민혁명군으로서의 사명과 함께 중국공산주의자들의 반만항일위업에 이바지하는 혁명무력으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간조와 동변도 일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반도 전역에서 가장 강대한 무장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통합개편하는 과정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취한 원칙적인 입장과 용의주도한 정치적 아량은 그후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인민의 공동투쟁, 특히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만일 우리가 당시의 주객관적 정세를 고려함이 없이 우리 혁명의 주체노선에 명실상부한 형식이나 명칭만을 고집하였더라면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중국인민의 광범한 지지성원 속에서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훗날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한 다음에도 조중항일연합군의 성격에 맞게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동할 때에는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였고 조선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거나 조선에 나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정황에 맞게 이름을 바꾸어가며 활동함으로써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중양국 인민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며 싸울 수 있었다.

우리가 운동의 그 어떤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본질적인 내용을 더욱 중시한 것은 지금의 시점으로 평가해보아도 참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원칙적인 견해와 폭넓은 태도로 하여 우리는 언제나 국제주의자로서의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도 투쟁의 민족적 성격과 독자성을 원만히 고수할 수 있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중국 동지들이나 국제당으로부터 높은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의 출판물들은 간도에 조직된 인민혁명군을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썼다.

1935년 상해 상무인서관에서 발행된 《동방잡지》는 동북에서의 빨치산 투쟁에 대하여 쓰면서 간도에 조선인민혁명군이 3,000명 있다고 했으며 이것을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구국출판사에서 발행한 《동북항일열사전》에 그대로 전재하였다.

후에 동북항일연군이 편성된 다음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를 2군이라고 부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성격에 있어서 조중 양국 인민의 국제적인 반일통일 전선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제2군안의 조선인들은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화민족의 해방운동을 국제주의적 기치 아래 지원하였다.

간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조직되어 그 전과를 확대해가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공포를 느끼고 그 존재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일 큰소리로 떠든 것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이었다.

그들은 동만과 남만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항일무장력을 그 명칭은 어떻든 《**김일성**군》으로 통칭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한 후 반일공동투쟁의 성과를 위하여 간도지방에서 공헌영, 채세영, 사충항, 이삼협 등이 이끌던 항일의용군은 제 2군의 군대호를 가지고 있던 조선인민혁명군과 연합하였는데 이것을 《동북화한인민혁명군》(동북조중인민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이런 공정을 거쳐 사실상 동만 땅에서는 1930년대 전반기에 벌써 조중항일무력의 연합이 확고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보중은 자기의 글에서 《항일연군 제2군은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이었다. … 항일유격전쟁 중 중조인민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선혈로 얽혀져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동투쟁노정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조중항일무력의 연합을 격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사람들도 만주, 특히 간도에 조직된 빨치산을 《조선인 순혈빨치산》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우리 동무들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쏘련의 이름 있는 중국 및 조선문제 전문가였던 웨. 랍뽀뽀르뜨는 1937년에 쏘련의 국제정치잡지 『태평양』에 쓴 《북부조선지역에서의 빨치산운동》이라는 글에서 《…조선빨치산들의 대부분은 통합되어 있고 자기의 중앙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혁명군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썼으며 《조선빨치산과 만주빨치산간의 현존하는 연계와 접촉의 확대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매우 큰 불안을 주고 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일본은 국경지역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다》고 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교체나 실무적인 재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일유격대가 걸어온 전투적 노정을 총화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유격대의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대오를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군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한 이후 우리는 적들의 위공작전을 분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벌였다.

. . .

장군님과 유머

재야인사 김모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2일~13일



6월, 겨레와 인류를 매혹시키며 경향각지에 **김정일**열풍이 몰아쳤던 그 6월.

식혀지지 않는 그 열풍이 초여름의 훈훈한 바람을 타고 더욱더 민심을 덥힌다.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교정에서, 가정들에서, 어딜가나 1년전의 그 6월에 대한 얘기로 꽃을 피운다. 평양을 찾은 남측일행을 따뜻이 맞아주신 **김정일**영도자님의 파격적인 예우, 그분의 수수한 옷차림, 환한 웃음속에 예의를 차리며 당당하고 여유있게 행동하는 모습, 크고 우렁우렁한 목소리, 거침없는 말투와 능숙한 대화들. 그분에게서 받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어제의 일이련 듯 다시금 되살아 온다.

나는 그 많은 충격들 가운데서도 웃음이 많으시고 유머가 풍부하신 그분의 모습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세간에 **김정일**영도자님은 장군형의 정치가, 근엄하고 실무적인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해 소탈하시고 밝은 웃음속에 빼어난 유머로 만사람을 매혹시키시며 멋있는 지도자로 우리들 앞에 성큼 다가서시었다.

밝은 웃음과 농담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고 껴안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바로 유머다.

유머는 장황한 연설이나 화려한 문구보다 더 큰 친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유머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에서 훌륭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인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생활의 윤활유로 되고 있다. 더욱이 대중과 함께 살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야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유머야말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덕목으로 인정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역사에는 재치있는 유머감각으로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거나 유명한 유머를 남겨 후세에 전해지고 있는

정치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유머처럼 그토록 기지있고 해학적이면서도 통속적이고 뜻이 깊어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그런 유머를 남긴 위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분의 유머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의 심장을 거머쥐는 민중적인 유머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두 번째 날인 6월 14일, 목란관 연회장에서 있은 일이라고 한다.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촬영하지 못한 남측기자들 속에서는 아우성이 터졌다. 그래서 남측 보도관계를 책임진 수행원이 **김정일**영도자님께 두분께서 손을 든 장면을 찍지 못해 기자들이 울상이 되었다고 기자들의 청을 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말씀드렸다고 한다. 그때 그분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김대중에게

≪그럼 우리 배우노릇을 한번 더 합시다.≫

라고 하시며 연탁으로 나가시어 그들이 사진촬영을 하도록 해주셨다고 한다.

수행기자들이 환성을 올린건 물론이요, 긴장했던 좌석에 폭소가 터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사진촬영이 진행되었다. 이 얼마나 소탈하시고 기지에 넘치시면서도 민중적인 유머인가. 그런 긴장하고 엄숙한 공석에서 평범한 기자의 청을 받고 실무적인 조치나 내려졌다면 얼마나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을까. 또 기자들은 얼마나 아쉬워했을까.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어쩔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소탈하시고 기지있는 유머로 평범한 기자의 소청을 들어주시고 만사람에게 밝은 웃음과 기쁨을 주시었다.

그분의 유머는 분단비극에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통일에 대한 사명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 있는 걸로 해서 더욱더 깊은 여운을 남긴다.

사람들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연회석상에서 하셨다는

≪연회장에서까지 이산가족을 만들 겁니까. 그래서 김대통령이 이산가족문제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지요.≫

라는 농담을 던지시어 김대중내외의 폭소를 자아내셨다는 사실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가 주탁인 아닌 일반탁에 앉아 있는 이희호여사를 자신곁에 불러주시고 그들의 웃음을 자아내신 영도자님의 사려 깊으시고 뜨거운 인간적 풍모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고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산가족과 관련한 그분의 이 유머에는 갈라진 겨레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는 그분의 숭고한 겨레사랑이 어리어 있다. 또 우리 민족은 더이상 갈라져 살 수 없는 한핏줄이요, 그가 누구이든 조국통일의 기치하에 하나로 뭉칠때만이 분단의 역사를 끝장낼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가 새겨져 있다.

송별오찬석상에서 있었다는 얘기도 그렇다. 그때 그분께서는 남북간에 신뢰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여러 장관들을 향해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조절을 잘 하라고, 잘 안되면 어제의 공동선언 또 휴지조각된다고 의미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것이 잘 안되면 자신께서 남쪽에 나가 장관하겠다는 농담을 던지시어 장내에 폭소가 터지게 하셨다고 한다.

정녕 겨레를 위해, 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영도자님의 거룩한 위인상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이요, 지금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충격으로 여운으로 남아있는 금옥같은 유머들이다.

하기에 평양상봉을 수행한 한 기자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기간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특히 **김정일**영도자님께는 밝고 환하신 웃음속에 재치있는 유머들을 구사하시어 만사람을 매혹시키셨다. 그분의 유머 하나하나에는 기지와 해학속에 사람들을 품어주는 뜨거운 인간애가 있고 사람들 모두에게 참다운 인생의 길을 깨우쳐주고 이끌어 주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자기의 소감을 토로했다.

모대학교의 한 교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유머는 들으면 들을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역사에는 유머로 이름을 남기고 있는 위인들도 적지 않지만 그들의 유머는 사람들을 웃겨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거나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정당화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영도자님의 유머속에는 겨레가 있고, 민족이 있으며, 민중이 있다. 그분의 유머가 그토록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근본바탕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참으로 **김정일**영도자님은 동서고금의 역사 어디에도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요, 유머의 대가이시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했다.

옳은 말이다. 위인이 있어 민족의 밝은 미래도 있는 법이다. 예지로 빛나는 선견지명과 해박한 식견, 탁월한 영도력과 고매한 덕망을 지니시고 뛰어난 유머로 만사람을 매혹시키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어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도 채택된 것이 아닌가.

그분의 영도를 받들어 이 땅위에 자주적인 연방통일국가를 일떠세우고 자자손손 복락할 민족의 내일을 그려본다. **김정일**영도자님과 같으신 위인중의 위인을 모시고 통일된 삼천리강토에서 웃음과 유머속에 행복하게 살 우리 겨레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울까.

펜을 놓으며 밝고 환하신 웃음속에 빼어난 유머로 온 겨레와 전세계를 매혹시키신 **김정일**영도자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다시한번 우러른다.



남북관계개선은 시대적 요구

김 채 옥 / 구국전선 제462호, 주체90(2001)년 12월 11일

현시기 남과 북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요구이다.

남과 북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남과 북사이의 대결과 불신은 민족단합과 통일을 저해한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맞지 않게 동족과의 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 반통일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당국은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걸고≪비상경계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이른바 ≪전력공백≫을 메군다는 구실밑에 외부로부터 1개대대의 공군무력을 끌어 들이었다.

이와 함께 휴전선근처에 대포와 장갑차를 들이밀고 각종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으며 이북에 대한 ≪주적≫이념은 버릴 수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6차남북장관급회담을 결실없는 회담으로 만들고 당국대화자체를 결렬시켰으며 민족통일축전에 참가했던 성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 처형하는 등 남북사이의 관계개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결과 전쟁책동에 의해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엄중한 상태에 처했고 한반도의 정세는 긴장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대결과 전쟁책동은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에 대한 도전이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짓밟는 반민족, 반통일행위이다.

이 땅에서 이런 범죄행위가 계속된다면 언제 가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으며 민족단합과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

남과 북은 한핏줄을 나눈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 겨레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은 우리 민족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외세 때문이었다.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해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전 민족적 위업이다.

통일은 곧 민족적 단결이며 화합이다.

남과 북이 서로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근거는 없다.

남북대결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백해무익하다. 그것은 분열과 전쟁에로 가는 길이다. 남과 북이 불신하고 대결하면 민족적 화해와 조국통일은 고사하고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을 빚어낼 수 있다.

반세기가 넘는 민족분열의 역사는 남과 북이 대결과 불신에서 얻을 것이란 분열의 지속과 전쟁과 같은 재난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새겨 주었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중대사를 앞에 두고 있는 남과 북은 같은 민족끼리 더 이상 적대시하며 대결하고 반목질시하지 말아야 한다.

각계 애국민중은 내외 반통일세력의 남북대결책동을 짓부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남북이 힘을 합쳐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 온 겨레는 현 북남관계가 풀려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부합되게 하루빨리 쌍방이 합의한 사항들이 이행되어 모든 일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이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가까이 할수록 북남관계가 원상 회복되기를 바라는 내외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북남관계의 현 사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측 당국의 시급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측은 북남관계는 안중에도 없이 벌써 몇달째 대화 일방을 심히 자극하는 비상경계조치를 지속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6차 북남상급(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키고 감히 주적론까지 고창하면서 나라의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이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6차 상급회담에서 쌍방 합의를 유산시킨 당사자인 남조선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요즘 자기의 그릇된 처사를 반성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우리의 군부까지 거들며 갈등이니 고립이니 하고 시비질해 나선 사실이다.

그의 당치않은 언동은 사실상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미 저지른 죄상위에 또 다른 죄악을 새로이 첨가하는 것으로 될 뿐이다.

모든 사실들은 남측이 북남관계를 오늘과 같이 만들어 놓은 빗장을 여전히 뽑으려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임있는 사람들이 입도 잘못 놀리면서 사태를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남측이 시간을 아끼고 용단을 내려 더 늦기전에 온 겨레가 납득할 수 있는 전환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정상궤도에 들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그것을 확고히 지켜나가며 북남 사이에 합의된 모든 일정들을 이행해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측의 입장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주체90(2001)년 12월 1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내년 설은 남북이 함께 맞을 듯

준비위, 12월 31일 금강산 실무회담 제의

내년 설(舊正)에는 남북이 함께 설맞이 공동행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설맞이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돈명 민화협 상임의장 외)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양력 2월 12일)을 맞이해서 오는 2월에 남북공동의 설맞이 행사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가칭)≫를 가질 것을 북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남북민간교류의 역사에서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던 2001년을 돌아보면서 남북 당국간의 관계가 여의치 않을수록 민간의 대화와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는 취지아래 민족공동의 설맞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하고 이 행사가 다가오는 2002년에도 민족화해를 위한 민간차원의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준비위는 이 행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오는 12월 31일 금강산에서 열 것을 제안하면서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금강산에서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게 된다면 올 한 해를 더욱 의미있게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화협 관계자는 ≪준비과정에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내실있게 준비하고 풀어나가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종단 관계자는 내부 이견에 대해 ≪일단 봉합은 됐고, 종단도 같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승인 여부에 대해 아직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는 19일 오전 10시에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18



≪정부,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승인 할 것≫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기자회견 가져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준비위)≫는 19일 오전 10시 덕수궁 옆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를 북측에 제안하고 오는 31일 금강산에서 이와 관련해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변진흥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돈명, 신창균, 한양원, 변진흥, 김철, 오종렬, 한상렬, 은방희, 조성우, 이승환, 김창수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돈명 준비위원장의 인사말과 이승환(민화협) 사무처장의 경과보고, 그리고 김동완 목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준비위측은 이번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는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장소와 관련해서는 ≪실무회담을 통해 안(案)이 조절되겠지만 금강산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장소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는 8. 15방북과 같은 사건 발생에 대한 기자들의 우려에 대해 ≪정치적인 내용의 행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남과 북이 만나 민속놀이 중심의 행사를 가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해 정부와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준비위측은 ≪통일부와 실무적 협의는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신중하게 추진하길 바란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민족공동행사 참가규모에 대해 준비위 관계자는 100명이 참가하고 100~200여명이 참관단으로 함께 방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달 31일로 제안한 실무회담이 ≪북의 제안 의미도 살리고 2002년 민간교류에 대한 총론적인 논의도 할 수 있는 풍성한 논의의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31일 실무회담은 종단의 변진흥 사무총장, 양산 스님, 노동계의 백만호(한국노총) 통일부장, 민화협의 조성우 사무총장, 이승환 사무처장, 그리고 통일연대의 한상렬 상임대표, 한충목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고 여기에 실무 담당 3인이 참여해 10여명이 될 예정이다.

한편, 변진흥 사무총장은 이번 공동행사가 결정되기까지의 어려움에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북측의 새해맞이 행사 제의가 너무 급해 일정상 어려움이 있었다. 시기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통일연대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다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창수(민화협) 정책실장은 이번 행사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날 지에 대해 묻자, ≪예≫라고 확신했다.

김창수 정책실장이 든 근거는 ≪정부가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 그에 따르면 1월 1일 행사는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정부 요구를 따를 수 없었지만, 설맞이 행사는 정부 요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부도 민간 차원에서 신중을 거듭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는 것을 알기에 승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북단 구성과 관련해서 김창수 정책실장은 ≪아직 논의된 원칙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경(통일연대) 사무처장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 아직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무리하게 방북단을 구성하지는 않을 듯한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19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를 제안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우리 온겨레는 이 땅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온겨레의 힘을 모아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에는 민간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북민간교류를 성사시켰습니다. 지난 6월 15일 금강산에서 남북의 각계각층이 참가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는 서울과 평양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을 개최하였고, 평양행사에는 340여명의 남측 대표단이 참가하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남북교류를 성사시켰습니다.

남북의 민간교류는 온겨레가 참여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평화와 통일의 대행진입니다. 물론 지난 8.15 민족통일대축전 과정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인원이 평양을 방문하는데서 빚어진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서 더 한층 성숙한 자세로 남북민간교류를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남북 민간교류의 역사에서 참으로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던 2001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민족화해를 위한 민간차원의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하는 남북공동의 설맞이 행사를 가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북측에 제안합니다.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구정)을 맞이해서 오는 2월에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가칭)를 갖고, 이 자리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한다면 남과 북 사이에 신뢰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실무회는 12월 31일 금강산에서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게 된다면 올 한 해를 더욱 의미 있게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제안에 대하여 북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믿으며,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1. 12. 19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설날에는 남북이 함께 ≪세배≫하고 ≪성묘≫가요

민간단체, 북측에 공동행사 제의…경색국면 활로 계기

경색된 남북관계가 민간교류로 풀려질 분위기다.

7대종단, 민화협, 통일연대가 다시 모여 민족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민족공동행사를 가지자는 제안을 북측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맞이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돈명 민화협 상임의장, 민족행사준비위)는 19일(수) 덕수궁 옆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31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구정(2월경)에 맞춰 금강산이나 설악산에서 본행사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인원은 양쪽 100여 명씩 예상하고 있으며 고유의 명절답게 민속놀이 중심의 문화행사로 제안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회담에 돌입, 회담 성사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암시했다.

기자회견은 7대종단 대표들과 민화협, 통일연대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돈명 준비위원장은 ≪올한해는 엄청난 민간급 교류의 성과들이 있었다. 특히 8. 15민족공동행사는 남측의 대규모 인원이 평양을 직접 가보면서 말로하기 힘든 민족애와 통일의 중요성을 느끼고 왔다≫며 ≪몇몇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당면과제는 화해, 협력, 통일인 것은 확실하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민간단체들의 뜻을 모아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동완 목사는 ≪남북관계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민간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행사를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민경우(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씨는 ≪9. 11 테러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북미대결이 격화돼 6차 장관급회담이 공동보도문 합의까지 이른 상황에서 결렬됐다≫ 또한 ≪최초의 대규모 민간교류에도 불구하고 수구세력들의 정치적 공세로 인해 민간교류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개되는 민간급 교류는 이후 남북당국자회담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형성된 남북화해 분위기는 미국의 대북 공세여지를 축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건은 정부(통일부)의 허락여부라는 것이 관측이다.

현재 통일부는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 관계자들은 ≪민간교류 추진을 정부가 막을 그 어떠한 명분이 없다≫며 전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북쪽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17일(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남쪽(정부)의 ≪전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9. 11테러이후 북미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남측당국이 취한 비상경계령을 비롯 통일부 백서의 주적론, 그리고 홍순영 장관의 북측에 신중치 못한 언행 등을 문제삼으며 남측당국이 진정으로 6. 15공동선언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관계정상화를 위한 남측당국의 결단의 촉구했다.

백영순 기자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성명 (대변인 보도 16호)

국가정보원이 최근 노골적으로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반민주반통일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먼저 8.15대회에 참여한 통일애국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하였다. 이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된다.

국가정보원은 또한 민족민주정론지인 자주민보를 탄압하며 애국적 언론인들을 구속하였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반민주반통일기구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국가정보원은 또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희대의 파쇼폭압기관이라는 점을 여지 없이 드러내준다.

국가정보원은 지금 칼기사건의 진상을 은폐조작하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안기부와 다름 없는 반북모략기구임을 입증한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정보원은 악명 높은 안기부의 후신이다.

안기부는 군사통치시절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를 고문살해한 곳이다. 안기부는 숱한 조직사건을 조작하며 통일애국운동을 탄압하였다. 안기부는 특히 선거 때만 되면 간첩단사건을 조작하며 파쇼정권의 재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최근 그 진상이 밝혀지고 있는 최종길교수살해사건의 진범도 바로 안기부이다. 수지김살해사건을 반북모략극에 악용한 장본인도 바로 안기부이다.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희대의 칼기폭파극을 조작한 범죄집단도 바로 안기부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런 안기부의 모략정책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강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제 2의 국가보안법이다. 테러방지법은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은폐조작하고 있는 칼기사건이야말로 미 중앙정보국의 지시하에 안기부가 저지른 자작모략극이다. 미 부시정부는 이 사건을 이용하여 이북을 테러국가로 낙인하며 나아가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이러한 파쇼책동은 모두 미 부시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일환이다. 국가정보원의 반북모략책동은 6.15공동선언을 휴지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우리 민중은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국가정보원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반민주반통일 파쇼도구인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당장 없어져야 한다. 우리 민중은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국가정보원을 반드시 해체시킬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12월 15일
서울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 발족



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한 15개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9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가칭)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98년 11월에 시작한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며 그 《구체적 실천모델》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강산 사업은 99년 6월 서해교전 등 절대절명의 악조건 속에서도 금강산을 향하는 뱃길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남북한 당국의 방관과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하여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나서 남북당국과 여.야가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상호간 약속이행과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섭(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공동대표는 ▲국민청원운동 ▲정당 및 관계기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청회개최 ▲민간단체 대표단의 12월 20일 금강산방문과 민간 평화관광 사절단 북한 방문 추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추진 및 금강산 지역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 ▲국제연대 활동을 통한 금강산을 사랑하는 국제연대조직 건설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이날 기자회견에는 곽태환(남북포럼 공동대표, 전 통일연구원장) 공동대표의 취지설명, 김성훈(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전 농림부 장관) 상임고문의 인사말, 김규철(시민사회아카데미 원장) 공동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 등이 있었다.

이날 발족한 준비위원회는 오는 27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시민사회·직능·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시켜 내년 1월 중순경에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이후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범국민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평화관광사업으로 재인식시키는 문제는 물론 일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벌살리기》라는 비판의 소리도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북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가칭) 준비위원회》의 발족은 금강산 관광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민족화해를 위한 평화관광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범국민적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13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가칭) 준비위원회 발족선언문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의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의 상징, 금강산관광의 정상화로 민족화해를 이룩하자



오늘 우리는 겨레의 영원한 유산이자 남북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 준비위원회 발족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98년 11월 역사적인 첫 발을 뗀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며 그 구체적 실천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금강산 관광을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4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89년 이후 10년 간 북한 방문객수가 약 6천명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분단 이후 최대규모의 물적・인적 교류로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민족화해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9년 6월 서해교전등 절대절명의 악조건 속에서도 금강산을 향하는 뱃길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남북이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며 그 값어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남북관계변화와 신뢰쌓기의 산증인이었던 금강산관광이 남북한 당국의 방관과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하여 바람 앞에 촛불신세가 되었다.

이렇듯 백척간두에 몰려있는 금강산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개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가지불이라는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평화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가칭) 준비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남북당국과 여・야가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상호간 약속이행과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세울 것과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어느 특정기업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남북한 정부와 온겨레가 함께 추진하여 가꾸어야 할 민족의 공통과제요 통일사업이다. 만약 이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도에 포기된다면 남북관계의 개선에 오점으로 남는 것과 동시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우를 범할 것이며 향후 남북관계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과 북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이 고비를 슬기롭고 용기있게 넘긴다면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이후 또 한번의 질적도약을 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

2001년 12월 13일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가칭) 준비위원회

민노총, 첫 ≪자주통일학교≫ 졸업생 배출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자주통일학교≫를 열고 첫 졸업생 83명을 배출해 관심을 모았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동안 충북 진천 ≪청소년 자연수련관≫에서 1기 민주노총 ≪자주통일학교(통일학교)≫를 열고 첫 졸업생 83명을 배출했다.

통일학교는 ▲김창현(전 울산 동구청장)씨의 ≪민족자주, 통일을 향한 힘찬 우리역사≫ ▲안영민(민족21) 기자의 ≪현 시기 북녘 바로 알기(6.15공동선언을 전후로 한 북녘 사회 실상)≫ ▲강정구(동국대) 교수의 ≪6.15공동선언의 배경 및 내용과 현 정세에서의 강령적 의의≫ ▲김영제(민주노총) 통일국장의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민주노총 통일사업 방향과 방침≫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부산, 광주 등 각 지역별 ≪현장≫에서 노동자 실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현장에서의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통일사업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통일학교는 이외에도 8.15 평양행사 비디오 시청, 통일노래와 율동 배우기, 체육대회 등을 진행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2박 3일간의 빠듯한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학교 졸업식을 갖고 일터로 돌아가 더욱 활발한 통일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2001년 하반기 사업으로 ≪전쟁반대 평화실현 반미자주화투쟁≫을 결의한데 이어 2001 전국 노동자 대회 전야제에서 ≪통일마당≫을 처음으로 개설해 노동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는 등 최근 노동자들의 통일관련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이번 자주통일학교 개설의 의미가 더욱 돋보였다.

내년 통일운동에 있어서 노동자가 중심에 서기 위한 노력으로 민주노총의 자주통일학교가 그 첫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대중적인 사업으로의 초석을 마련한 것≫

노동자도 통일운동에 실천적으로 결합해야한다고 얘기하는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은 이번 자주통일학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대중적인 사업으로의 초석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다음은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과의 미니 인터뷰 내용이다.

□ 통일뉴스 :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 김영제 : 2박 3일 동안 집중 일정으로 연가(연차휴가)를 내야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여명이 처음에는 지원 신청을 해 호응이 컸다. 그런데 금속연맹과 택시연맹이 파업 투쟁을 전개하게 돼 50여명이 불가피하게 참가를 할 수 없게 돼 안타까웠다. 그래도 열성적인 지원과 참여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 자주통일학교에 대한 평가는?

■ 김영제 :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잡지 않았나 하는 불만이 일부 참가자 중에 제기되기도 했지만 참가자 모두는 치열하게 내용을 흡수해 가려는 대중의 열의가 돋보였다. 강사로 참여했던 ≪민족21≫의 안영민 기자는 많은 수련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시간 맞춰 진행한 곳은 처음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각 일정에 맞춰 어김없이 진행하는 등 타이트하게 진행했다. 참가자들도 일정을 마치고는 만족해 했던 것으로 보였다.

□ 자주통일학교가 갖는 의미는?

■ 김영제 : 민주노총의 통일사업들을 앞장서 나갈 각 연맹의 지역본부 일꾼들이 함께 교육에 참여해 만나고 민주노총 통일사업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또한 함께 민주노총의 통일사업을 총정리할 수 있는 첫 기회였다는 것과 처음으로 통일학교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내년부터 좀더 확대해서 중앙과 함께 개최하되 지역본부별로 동시 개최하는 -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기 통일학교를 개최할 수 있는 - 좀더 대중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 큰 의미로 꼽힐 수 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17

미군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 추진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1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주한미군은 서울 용산기지내에 있는 노후 장교숙소를 대체하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내년 여름에 이곳에 아파트를 착공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한국정부에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착공한다고 주한미군 공보실장이 말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는 주한미군측이 용산기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기지내에 아파트까지 세운다는 것은 국민감정상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도 미군이 최소한 20내지 30년동안 주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단체간 연대를 통해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물론 다른 고장 주민들도 용산기지내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려는 주한미군의 책동에 항의하면서 한미행정협정의 파기와 미군기지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에 빼앗긴 우리땅을 되찾으며 미군이 이땅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으로하여 상생되는 각종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의롭고 정당한 투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땅에는 100여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그 면적은 무려 1억평이나 됩니다. 미군은 이 기지 안팎에서 치외법권을 행사하며 매일 매시각 각종 악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기지에서 북침을 위한 전쟁연습을 연일 벌이면서 무고한 우리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살인과 강간, 강도, 폭행을 자행하면서 민중의 인권을 여지없이 유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기지에서 온갖 퇴폐문화를 보급하고 밀수, 마약, 에이즈 등을 전파하며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뿐 아니라 환경을 심히 파괴하거나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들이 도사리고 있는 기지들을 하루빨리 반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못이겨 미국은 지난 11월에 있은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일부 주한미군기지를 반환하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고 또 이미 전에 서울 용산기지도 반환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고서도 미군측은 그 약속을 이행할 대신 도리어 용산기지내에 당치 않은 구실을 붙이며 아파트단지까지 건설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땅을 불법 강점하고 50여년동안이나 우리 겨레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가 아니라 영원히 남아 있게 하려는 날강도적 속셈을 드러낸 또하나의 용서할수 없는 책동이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들과 세계진보적 민중들의 일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땅을 영구강점하고 우리 민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계속 강요하려는 기만적 책동을 어찌 우리가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주한미군철수는 오늘 우리 시대의 간절한 요청이고 7천만 겨레의 사활적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이 분기해 주한미군철수와 기지반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그리고 줄기차게 벌여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요격미사일제한조약 탈퇴 결정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5일～16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부시미국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이 지난 72년에 구소련과 체결한 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러시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이 부시미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난은 천백번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정부과 구소련은 지난 72년에 요격미사일의 보유권을 각각 하나로 하며 그 전개범위도 150킬로미터 이내 한개 도시에 국한시킬데 관한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미소 두 나라에서도 유익했을뿐 아니라 세계적인 힘의 균형보장과 군비경쟁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과의 핵대결에서 어떻게하나 미사일을 개조하고 전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89년에 당시 레이건대통령이 전략방위조약을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미국은 일명 별세계전쟁계획으로도 불리운 이 구상이 우주에 레이다요격무기들을 배비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지상발파요격미사일을 염두해 두었던 미소 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진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다 성공가능성도 요원하다는 내외의 공개적인 반대여론에 못이겨 일시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미국은 83년부터 별세계전쟁계획의 재판이라고 할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개발을 추진시켰습니다.

특히 부시행정부가 출범한이후 이 야심적인 미사일방어체제수립책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72년에 체결한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은 낡았다면서 오늘 군사대국들은 물론 이북을 비롯한 이른바 불량배국가들까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이런 나라들에 의한 미사일공격위협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이 절실하고 그러자면 그것을 제약하는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은 파기돼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 서방의 미동맹국들까지 반대하자 이번에는 아예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같은 탈퇴결정은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파기하고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킬뿐 아니라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미국의 이번 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서의 탈퇴결정의 엄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거추장스러운 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세계제패를 노린 야심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이 우선 북침을 겨냥하고 있다는데 그 엄중성이 큰 것입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의 첫 시험장을 우리 나라의 동해로 설정하고 최신형 요격미사일장치를 장착한 이지스함 2척을 배치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위한 미국의 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서의 탈퇴결정에 대해 분격하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제반사실은 미국호전집단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인류를 무서운 핵전쟁 도가니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평화와 인류의 원수라는 걸 말해줍니다.

각계민중은 미국의 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서의 탈퇴결정을 반대하고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

서울 동작구 장민식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0일~11일

≪주한미군의 시야에는 우리 민중이 뭘로 보이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한 미군장교의 말에서 찾을수 있다.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에는 주한미군 탱크훈련장인 다그마훈련장이 있다. 이곳 주민들은 주한미군의 훈련장때문에 실로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더이상 참고 당하고만 있을수 없었던 농민들과 주민들은 지난 9월 훈련장 진입로를 막고 훈련장폐쇄와 미군공여지반환을 요구했다. 정당한 요구였다.

그런데 당시 현지에 있던 미군장교는 이들의 요구를 일축해버리고 자기 사병들에게 탱크로 사람을 깔아죽여도 책임이 없다고 하며 주민들을 향해 탱크를 내몰았다.

우리 민중을 무시한 주한미군의 횡포한 작태에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미군의 이같은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에 와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년전 미국 야수들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땅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았다. 그때부터 이땅에서는 미국 식인종들에 의해 우리 민중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미군의 살육만행은 특히 6.25전쟁시기 우심하게 자행되었다. 영동 양민학살사건도 그중의 하나다. 당시 인민군에 의해 패주하던 미군은 안전한 곳으로 피란시켜 주겠다며 수백명의 피란민과 임계리, **리 주민들을 끌고 가다가 노근리앞 경부선철로와 그 아래 쌍굴다리 밑에서 2박 3일간에 걸쳐 야수적으로 학살했던 것이다.

미군은 노근리에서뿐 아니라 수원, 충주, 공주와 평택, 부여와 정주, 전주, 군산, 안양, 통영을 비롯해서 6.25전쟁도발후 51년 여름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100만명이상의 우리 민중을 살육했다. 미군의 살육만행은 전후에도 계속되어 세상에 알려진 것만해도 10만건이 넘는다. 57년 나물뜯는 소녀를 꿩이라고 쏘아죽인 ≪군산소녀총격사건≫을 비롯해서 58년 ≪부평소년헬기궤짝사건≫, 62년 ≪파주나무꾼사살사건≫, 65년 ≪김수미양 살인미수사건≫, 70년 ≪동두천부부살해사건≫, 81년 ≪총기난사사건≫, 92년 ≪윤금이살해사건≫, 2000년 이태원동 ≪여종업원살해사건≫ 등 미군의 살육만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인디언의 시체더미에서 태어나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진 미군살인귀들, 이땅을 총칼로 강점한 그때부터 미군야수들의 시야에는 우리 민중이 짐승만큼도 여겨지지 않고 저들의 심심풀이 살육의 대상으로만 비쳐졌다.

우리 민중을 탱크로 깔아 죽여도 무방하다고 한 미군장교의 말은 주한미군의 횡포성과 피를 즐기는 야수성을 또 한차례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젠 똑바로 알아야 한다. 더이상 그 오만성과 야수성으로 이땅을 지배할수 없다는 것을.

어제날의 우리 민중이 아니다. 반미로 눈을 뜨고 거세찬 반미투쟁으로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의 새날을 마련하려는 우리 민중이다. 지금 매향리와 장파리의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들은 이제 우리에겐 미군훈련장들을 폐쇄하고 주한미군을 이땅에서 몰아내는 길 외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오늘 경향각지에서 연속 터져나오는 반미함성을 들어보라. ≪양키는 물러가라!≫, ≪주한미군 물러가라!≫, ≪우리땅 되찾자!≫ 이것은 양키침략자들을 기어이 이땅에서 몰아내고야 말려는 우리 민중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다.

지금 우리 민중은 이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 살육과 재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는데 있다는 걸 잘알고 있다. 바로 그래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민중이 반미성전에 분기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에서 우리 노농대중이 앞장서야 하리라고 본다.

노농대중이 앞장서서 싸워나갈때 반미열풍이 더욱 휘몰아치고 미제침략군은 마침내 이땅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네,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 서울 동작구에 살고 계시는 장민식씨의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군을 이땅에서 몰아내기 전에는 우리 민중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가셔질 날이 없습니다. 그런만큼 노농대중을 비롯한 각계민중은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미군을 이땅에서 몰아내는 반미항전에 더욱 분기해 나서야 할줄 압니다.



미군기지 완전 철페해야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2일～14일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애 국민중들 속에서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른바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것이 토의결정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광주전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를 규탄해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 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남총련은 성명에서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통과시키고 주한미군유지비분담금을 인상하는 등 민중의 요구와 전면 배치되는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건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차지하고 있던 기지들 중 4,000여만평을 당국에 반환하고 대신 경기도 평택, 오산, 의정부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 등지에 75만평의 땅을 새로 제공받고 이를 통해 기지를 더욱 대형화할 것을 획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토지반환계획을 강요한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침략무력증강과 이땅에 대한 영구강점을 위한데 있습니다.

우선 ≪연합토지관리계획≫에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일언반구도 없고 오히려 경기도 평택, 오산, 의정부 등 전연 가까운 지역에 새로 군사기지를 꾸릴 것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군의 토지반환계획이 부시행정부의 국방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성추진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이지 결코 미군기지를 고스란히 돌려주자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연합토지관리계획≫이란 건 기지반환의 목적보다는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그에 따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한 고리로 육군중심의 주한미군을 공군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속셈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이 이번에 반환을 결정한 기지들로 말하면 이미 심각한 환경파괴로 인해 실용가치를 상실한 곳들이고 적지않은 기지들은 미군측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나마 용산기지와 매향리사격장 등 우리 민중이 제일 선참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기지들은 아예 반환대상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마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제반 사실은 주한미군의 기지반환놀이가 주한미군의 침략무력을 강화하고 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한반도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데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반미자주화와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고 있는 우리 민중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청년학생들이 외치는 주한미군철수의 함성과 미군기지가 새로 들어설 의정부와 평택, 포항지역에서 타오르고 있는 미군기지신설확장반대운동은 높아가는 민중의 반미투쟁의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반미는 대세이고 통일은 애국입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주한미군철수와 기지철페 등 반미자주화의 선봉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미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범죄적 저의와 그 악결과를 각계민중속에 더욱 똑똑히 알려주기 위한 대민홍보활동을 계속 벌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계민중과 굳게 연대해서 주한미군기지완전철페, 주한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들고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당면하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 등 30여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를 내오고 투쟁하는 여건에서 그에 적극 지지동참하여 미군기지신설확장반대운동을 과감히 벌여야 할겁니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기운과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침략자이고 살인마인 주한미군이 발붙일 곳은 이땅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은 더이상 우리 민중을 기만하지 말고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완전히 철페시켜야 합니다. 만일 미국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애국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민중의 더 큰 항거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민중들 속에서는 미국의 범죄적인 연합토지반환계획을 규탄하며 주한미군기지를 철페하기 위한 투쟁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형언하기 힘든 주한미군의 간악한 범죄와 추악한 행위, 미군기지에 의한 피해로 인해 우리 민중은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마침내 미군의 강도적인 토지반환책동으로 하여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과 경기도 화성, 파주, 동두천, 의정부와 하남, 안양, **, 부산 등 경향 각지에서 주한미군철수와 미군기지철페투쟁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군철수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4일~16일

지금 미군철수투쟁, 미군기지반환투쟁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가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미군기지반환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쟁은 미군기지가 도사리고 있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군철수문제는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미군철수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이 이남땅을 강점한지 5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을 노려온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계기로 패망한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는 미명하에 무력으로 이땅을 강점했습니다.

미군은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땅에 들어온 철저한 강점군입니다. 미군은 이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우리 나라의 분열을 조장시키고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한사코 막아나섰으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왔습니다. 미제침략군의 56년간의 이남강점사는 이땅의 민중들에 대한 치떨리는 대중적 학살만행과 야수적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피의 역사, 범죄의 역사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침략군이 이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우리 민중의 피가 흐르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수입니다. 미군이 이땅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반세기가 넘는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서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족의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적인 모든 통일노력은 이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언제나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새 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대북강경적대시정책은 이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위험성을 더욱더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온 겨레의 통일열기는 전례없이 뜨거워졌고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는 삼천리 온 강산에 차넘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응당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맞게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이 땅에서 철수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할 대신 오히려 이북을 제1주적으로 규정하고 이북의 상용무기축감문제까지 강요하면서 북을 무장해제시켜 힘으로 압살해보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에서는 북과 전제조건없는 대화재개를 운운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남과 그 주변에 있는 미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최신장비들로 현대화하고 있으며 북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을 연이어 벌여놓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의 뉴욕에서 있은 습격사건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밑에 미공군전투무력을 이땅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미군의 이러한 구상에 따르는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은 오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과 전쟁위험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개선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없게 하는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이야말로 평화의 교란자이고 민족분단의 장본인이며 우리 민족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향각지의 각계민중은 미국은 주한미군기지를 철거하고 이 땅에서 당장 물러가라, 반세기이상 이 땅을 틀고앉은 미군을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들고 반미투쟁에 떨쳐 일어서고 있습니다. 실로 미군철수는 오늘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각계애국민중은 미군철수가 가지는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미제침략군을 몰아내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서야 할 것입니다.



네, 미군철수투쟁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설때 미군은 견디지 못하고 철수할 것입니다. 민족자주는 몇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민족사적 과제입니다. 그가 누구든 반미투쟁을 외면한다면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역적죄를 짓는 것으로 될 겁니다.

서울 도심 뒤흔든 ≪전쟁반대 파병반대≫ 물결

지난 15일 1천여명 전쟁반대 파병반대 범국민대회 진행



또 다시 미국반대, 전쟁반대, 파병반대의 목소리가 서울 도심을 흔들었다.

영하로 떨어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토) 오후 2시 동대문 운동장에서 전쟁반대, 파병반대, 테러방지법 저지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가 범민련, 민주노총, 한총련, 자통협 등 약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각계 6백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주최로 전쟁반대 파병반대 정치연설, 투쟁 경과 보고, 서총련 노래단 조국과 청춘의 문화공연, 평화실현 호소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민주노총 허영구 직무대행은 ≪이번 아프간 전쟁은 테러 방지라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미국의 의도는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패권적으로 장악할려는 음모일 뿐이며 미국의 이 더러운 전쟁에 우리 나라 젊은이들의 아까운 목숨을 버릴 순 없다≫고 전쟁과 파병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김성희 국장은 ≪공동실천은 범국민적 반전평화운동을 펼칠 목적으로 11월 8일 결성, 아프간 난민 돕기 모금운동, 반전 서명 운동 전개했으며 이번 범국민대회를 통해 강대국 논리에 의한 전쟁과 파병반대를 전국민적으로 확산할 것이다≫라고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아름나라 어린이들이 나와 문화 공연을 진행했으며 어린이들은 전쟁반대 평화실현 호소문을 통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불쌍한 사람은 도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된다고 배웠는 데 현재 미국은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 할아버지도 착한 우리나라 군인 아저씨들을 멀리 보낼려고 하고 있다. 미국과 김대중 대통령 할아버지는 하루빨리 전쟁과 파병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전해 주위 사람들의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이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장충 체육관까지 행진을 했으며 정리집회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은 ≪개방농정으로 농민들을 죽이는 것도 미국, 경제침탈 구조조정으로 농민들을 죽이는 것도 미국, 전쟁과 파병으로 젊은 이들을 죽이는 것도 미국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반미 뿐이며 나아가 자주통일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김성헌 기자

시민사회단체, 김동신 국방장관 퇴진촉구



용산 미군기지 아파트 건립 허용을 발표한 김동신 국방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소파개정 국민행동),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기지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7일 주한 미군의 용산 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 계획이 밝혀진 이후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해왔었다. 그 가운데 국방부가 13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용산기지 아파트 건립 허용 방침을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

김종일(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비위)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정현(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용산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한 주한미군 측의 통보사실을 은폐했으며 또한 지난해 주한미군이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조차도 은폐해 왔다고 주장하고, 이는 명백히 국방부가 용산미군기지를 반환 받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주한미군의 용산 미군기지내 아파트 건설계획은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와 서울시 등도 반대하고 용산기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방부만이 이를 허용하는 국적 불명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최규엽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를 통해 《우리나라 장관 중 맨 먼저 물러나야 할 사람은 김동신 국방장관》이라며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이 국방부와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국방부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20여분간을 국방부가 면담에 응할 것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촉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국방부 현판을 향해 달걀세례를 퍼붓는 것으로 강하게 항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어제(13일) 저녁 국방부 앞으로 오늘 면담과 관련한 일정을 공문으로 보내고 국방부가 이에 대해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관련한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 오는 22일 용산기지 근처에서 모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반미 한마당을 지역주민들과 열고, 29일에는 1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시민대회》를 미8군 앞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용산기지 아파트 건립 허용 방침으로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투쟁 대상이 국방부로 바뀌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투쟁 양상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3일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군의 아파트 건립을 찬성하는 한편, 이를 반대하고 나선 시민사회단체를 비난하고 나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15

진해 해군통제사령부 앞 파병 반대 집회 열려



서울, 부산, 진해, 마창,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은 해군 수송지원단 파병을 앞둔 18일 연대집회를 갖고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중단을 촉구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다함께,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준),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경남본부(준) 등의 단체는 아프간 전쟁에 파병될 해군 수송지원단 창설식과 파병이 있는 18일 오전 10시 경남 진해 해군통제사령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프간 전쟁 한국군 파병 반대와 해군 수송지원단 출항 중단을 촉구했다.

석영철(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홍근수(자통협) 상임대표는 ≪자연의 한파보다 더 추운 한파를 오늘 아침 경험하고 있다≫며 ≪그건 바로 김대중 정권의 아프간 전쟁에 한국군 파병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근수 상임대표는 ≪명분과 도덕과 법이 없는 한국군 파병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산 실천연대(준) 이인수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침략전쟁을 반대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김대중 정권은 침략전쟁에 파병한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35년전 베트남전때 참전해 1급 장애를 받기도 했다는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경남본부(준)≫ 소속 ≪열린사회희망연대≫ 김영만 의장은 규탄연설을 통해 ≪미국은 옛부터 손목 달라고 해서 손목 주면 입술 달라고 하고, 나중엔 몸까지 달라고 하는 놈들이라며 지금 수송지원단 파병은 얼마후 반드시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드시 이를 저지하자고 호소했다.

이외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용택 대표, 김판태(소파개정 국민행동) 사무처장의 규탄연설이 이어졌으며 황철하(경남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집회는 각 참가단체 대표들의 ≪침략전쟁 미국반대!≫ ≪침략전쟁 파병반대!≫라고 적힌 플랭카드를 매단 풍선 날리기를 마지막으로 집회를 마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미 군사고문단 앞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미 군사고문단 앞에서 이재구(민주노동당 창원을 지구당) 위원장, 다함께(고대모임) 이상권 학생의 규탄연설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진해 해군통제사령부 안에서는 해군 수송지원단 창설식과 170여명의 해군 수송지원단 파병이 같은 시간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영철 사무처장은 ≪아직 경남 지역의 반전 반미 분위기가 낮지만 단체들을 추스려 참여를 확대시키고 대중적으로 반전 분위기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기자에게 밝혔다.

또한 ≪미국의 침략전쟁이 한반도 평화위협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에 내년에는 6.15선언 실천으로 남북화해를 이뤄내는 길만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각오로 열심히 싸우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또한 후배들과 이날 집회에 참가한 김규동(진주산업대, 4학년, 환경공학과) 학생은 ≪이번 파병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이라크와 이북까지 확전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모처럼 조성된 통일분위기를 해치는 측면에서라도 반전, 반미 투쟁을 진주에서도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해 =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18

반통일역적들을 지옥으로 보내자

부산대학교 김철용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2일~14일



서양의 ≪최후의 심판≫과 동양의 ≪지옥불≫은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명화라 일컫는다. ≪최후의 심판≫은 세상의 종말에 재림한 예수의 심판과 구원을 다룬 기독교미술의 주요한 주제의 하나이다. ≪지옥불≫은 불교의 윤회사상이 가미된 법정신의 체현물로 그중 **불은 *왕에서 **왕에 이르는 저승의 재판관인 10명의 왕이 세인을 심판한다는 내용이다. 어쨌든 ≪최후의 심판≫이나 ≪지옥불≫은 죄많은 인간을 심판한다는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예로부터 죄지은 자를 증오하며 용서하지 않았다.

지금 이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극우익반통일분자들의 죄악이야말로 결코 용서받을수 없는 것이며 당연히 지옥의 기름가마나 저승사자에게 던져질 첫번째 대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우리 민중 아니 온 민족이 열망하는 조국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대세의 흐름과 민의에 역행하는 죄만큼 크고 무거운 죄는 없다. 보라. 한 핏줄을 나눈 동포를 주적으로 보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군부당국자의 망발이 다시금 터져나왔고 통일문제를 논하는 남북대화장에서까지 주적타령을 하는 판이다. 입에서 구렝이가 나가는지 뭐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게거품을 물고 외쳐대는 모습은 반통일광증이 극도에 달한 히스테리적 발작을 연상케한다. 심지어 극우보수세력들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까지 헐뜯으며 대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론을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는 청년학생들과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 탄압의 광풍속에 얼마전에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잡지 ≪자주민보≫의 옳은 언론활동이 탄압당했다. 그리고 남총련 제10기 의장 최종은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애국청년학생들과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 민주노동자회의 노동운동가들, 동국대학교 강정구교수 등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이 국가보안법의 희생물로 되었다. 한마디로 이북을 동경하고 민족자주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학생이든, 정치가이든, 노동자이든, 종교인이든 할 것 없이 친북이적분자로 몰려 철창속으로 끌려가고 있다.

반통일세력의 이같은 책동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심히 팽팽해지고 있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이것은 반통일세력이야말로 외세에 빌붙어 분단에 기생하는 사대매국노들이며 동족을 재물로 섬겨바쳐 기득권을 추구하는 카인의 후예들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 어찌 이런 자들을 용납할수 있겠는가. 아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민중은 못된 행위만 일삼는 반통일역적의 무리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이제 민의에 역행한 그 죄로 반통일세력이 최후의 심판대에 올라 지옥의 기름가마에 처박힐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극우반통일분자들은 청년학생들과 각계민중의 통일애국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돌아치지 말아야한다.

네, ≪반통일역적들을 지옥으로 보내자≫ 부산대학교 김철용씨의 글이였는데요.

대세의 흐름과 민의에 역행하는 반통일역적들과 함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도 당장 지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청년학생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이 국가보안법의 칼날에 쓰러져 갔습니까. 민주를 외쳤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철퇴를 맞았고 근로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조국통일을 위해 싸웠다고 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더이상 희세의 살인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둘수 없습니다. 백만청년학생들의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시켜야 할겁니다.

이회창을 제거해야 할 이유 몇가지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0일~12일

지금 항간에서는 《그 사람 안돼!》라는 말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유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사람 안돼!》는 이회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회창이 정계에 있어 가지고서는 자주도, 민주도, 통일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할겁니다. 네, 이회창과 같은 민족의 역적은 제때에 제거해버려야 하는 거죠.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계에서는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을 제거하라는 분노의 함성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각계에서 거세게 분출되고 있는 우리 민중의 이같은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중이 이회창을 제거하라는 분노의 목소리를 그처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선 이회창이 이미 청산됐어야 할 친일주구의 후손일뿐 아니라 그 자체가 외세에 추종이 되어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극악한 민족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이회창일족이 3대에 걸쳐 외세의 하수인이 되어 민족의 이익을 서슴없이 팔아먹어온 추악하고 더러운 족속들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이회창일족의 매국배족행위는 애비때에 이르러 극도에 달했는데 그것은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가 일제관청의 사모를 버젓이 쓰고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적 민중탄압에 앞장서온 사실만으로도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발굴된 일제의 《조선총독부급 소속관서직원록》과 8.15광복후 미군정청의 《임명사령 제64호》는 이홍규의 민족반역행위를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급 소속관서직원록》에 따르면 이홍규는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1929년에 벌써 일제의 충실한 노복이 될 것을 서약하고 조선총독부 검찰관서에 들어갔습니다. 그후 1932년 서기겸 통역으로 승진하는 것과 함께 해주지방법원 송화지청 등을 전전하던 이홍규는 1940년에는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자리를 옮겨 일제의 사상담당 검사밑에서 근무하면서 친일주구로써의 정체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전주와 광주 두 곳에 현 공안검사에 준하는 사상담당검사를 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독립투쟁열기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전주와 광주에 사상담당검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온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체포, 투옥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거림낌없이 감행했는데 바로 그 악역을 이홍규가 행했던 것입니다.

이홍규가 일제검찰기관에서 근무한 조선사람으로써 고속승진을 할수 있은 것은 그가 이처럼 독립운동가검거와 학살에서 남다른 기질을 발휘했기 때문이였습니다.

이홍규가 《마루야마》로 창씨개명한후 어린 이회창과 함께 기모노를 입고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가보로 전해왔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극악한 친일주구였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실감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홍규는 8.15와 함께 일제를 대신해 이 땅을 강점한 미국을 충실히 섬긴 댓가로 따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검사노릇을 하면서 미국의 군정통치를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선 수많은 애국자들을 탄압,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미국의 손때묻은 주구였습니다.

이처럼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미일에 충실한 이중주구로써 민족의 이익을 해치고 동족을 학살하는데 앞장선 극악한 매국역적이였습니다. 예로부터 역적은 3대를 멸족시켜야한다고 일러오고 있는 것은 이홍규와 같은 역적들을 염두해둔 말인 것입니다.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역적 가문을 빼어 닮은 이회창은 조상들을 찜쪄먹을 매국반역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해 사람들을 경악케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의 사대매국근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그가 역적중의 상역적들만이 줄줄이 나와 국민적 원한의 표적으로 되고 있는 자기의 생가를 복원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회창이기에 그는 지금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침략자들을 신주모시듯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우리 민중의 일치한 요구에 《절대불가》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6.25전쟁과 그를 전후한 시기 이땅 도처에서 감행된 미군의 귀축같은 양민대학살만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매향리사격장폐쇄 등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이 《한미관계》에 《손상》을 준다면서 강경대처해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참배와 일본우익단체들의 역사교과서왜곡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일투쟁마저 《한일관계》발전에 《저해》를 준다며 자제할 것을 주장해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도 다름아닌 이회창인 것입니다.

각계에서 이런 이회창을 두고 앵글로색슨족의 후손인지 사무라이의 양아들인지 분간할수 없다면서 그를 현대판 이완용으로 규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민족의 넋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고 민족에게 해되는 일만을 골라서 하는 이런 이회창이 아직

살아 활개치고 있을뿐 아니라 정치인이랍시고 제법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은 참말로 국민의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민중이 이회창을 제거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또한 그가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민주와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민주의 적, 통일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회창은 민주주의에 대해 곧잘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은 민주의 주적으로써의 자기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넋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1961년에 한국 역사상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으로 알려진 ≪민족일보≫사건을 ***낸 당시의 법관이였습니다. 당시 ≪민족일보≫사건의 담당판사였던 이회창은 사회적 진보와 통일을 주장하는 민족일보의 사장을 비롯한 애국적 언론인들을 사형과 중형에 처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회창이 법관시절에 처형한 애국민중인사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이회창은 정계에 기여든 다음에도 민중의 민주화의사에 역행하는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악법으로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철폐요구를 한사코 반대해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회창입니다. 최근 민주세력이 강화되고 그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이회창은 이를 8.15이후의 좌우대결정국을 연상케한다면서 전교조를 비롯한 합법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사회주의적 집단≫으로, ≪홍위병≫으로 몰아붙이는 등 이땅의 신매카시즘적 광풍을 몰아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파쇼광에게 정치를 맡겼다가는 유신독재시대가 재현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회창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한사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합의해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겨레는 물론 온 세상사람들이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만은 6.15공동선언을 조항조항 따라가며 시비하고 반대하는 무엄하고 불쌍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퍼주기다, 뭐다하며 시비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의선철도복원공사에 대해서는 남침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트집을 걸어 세상사람들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회창이기에 그는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으로 갈때에는 자기 패당을 내몰아 그들의 북행길을 가로막게 하는 망동을 부렸던 것이고 8.15민족통일대축전때와 같이 통일운동에 앞장 섰던 사람들에게 이적의 감투를 씌워 구속케하는 히스테리적 광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회창이 동족인 이북을 소멸해 버려야 할 주적으로 몰아붙이면서 남북관계를 예측할수 없는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간에 모처럼 무르익어가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냉각되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남북장관급회담과 이산가족교환방문을 비롯해 남북사이에 진행되던 여러 갈래의 회담과 교류협력사업들이 결렬되게 된 것은 이회창이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남북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해 온 것과 적지않게 관련되는 것입니다. 꿈에도 소원인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민족의 머리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기 위해 혈안인 이회창은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회창을 제거해야할 이유로는 이외에도 그가 정치인으로써의 초보적인 자질과 품격도 갖추지 못한 사기한이며 부정부패의 왕초라는 것 등 많은 것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회창은 정치인은커녕 민족구성원으로써의 자격조차 없는 시정협잡배이고 인간추물이며 민족에게 **** 우환단지입니다.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만고대죄를 지은 이회창은 우리 민족의 일치한 요구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고 정계에서 퇴진해야 합니다.



대학신문기자들도 이회창 반대투쟁에 나섰다

대학신문논조 ≪반미 반이회창≫이어야



≪반미 반이회창 대학신문기자 실천위원회(준)≫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결성을 선언했다.

전국에서 상경한 대학신문기자들은 지난 12월 2일 열린 ≪반미 반이회창 토론회≫를 통해 남북공동선언 관철이야말로 이 시대 대학신문기자들의 지향이라는데 합의한 바 있으며, 이날 드디어 대학신문기자의 특성에 맞는 반미, 반이회창 투쟁을 펼쳐나갈 기구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대학신문기자들은 새세기 대학신문의 사명이란 민족언론, 통일언론을 확고히 가져가는 것에 있으며, 그 방도는 6참15공동선언을 지지관철하는 속에 있음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부시 당선 이후 한반도에서 북미긴장감이 고조되괴 있는 것과 동시에 이남당국의 비상경계령 선포로 인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미국과 이회창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대학신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반미 반이회창 대학신문기자 실천위원회(준)≫를 결성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하나 임시위원장(홍익대 신문사 편집국장)은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묻는 질문에 ≪더 많은 지역의 대학신문사와 함께 투쟁을 벌이기 위해 개별적 만남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반미 반이회창 지면을 만들어 학우들에게 적극 선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선언대회를 진행했다. 민족과 민중의 언로를 개척하고자 자기사명을 다하는 청년기자들의 ≪정론≫을 기대한다.

자주민보 2001.12.17

≪≪반민특위≫에서 청산못한 역사 ≪조선일보 민간법정≫에서 심판한다≫

각계 사회단체 2천여명, 민간법정 추진위원회 결성



조선일보가 민간법정에 고소될 예정이어서 향후 여론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월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와 통일연대, 민변이 주최가 되어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했으며, 18일(화) 안국동 느티나무에서는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진행해 이후 1월 3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민간법정에 대한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임종일(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연합, 범민련을 비롯한 민민단체와 민언련 등 언론단체, 민주노총 등 노동계,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두루 참여해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의 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민간법정은 전민특위(한국전쟁 당시 미군 학살만행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주최의 뉴욕 ≪국제전범재판≫에 이은 두 번째 민간법정으로서 배심원 제도를 택해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법정의 구성으로는 강만길, 리영희, 신창균 선생 등 6여명의 고문단을 비롯, 63인의 공동대표, 김동민, 문규현, 오종렬, 이종린 허영구 등 7명의 상임대표, 영화예술인 명계남씨가 운영위원장, 김승교(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등 12명의 운영위원, 법률지원단, 기획단으로 꾸려졌다.

오종렬(시민연대·통일연대 상임대표) 추진위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조선일보는 이미 언론이 아닌 절대권력이다. 독립투사들을 탄압하던 펜대는 이제 분단고착을 향하고 있다≫며 ≪통일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 바로 조선일보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간법정을 준비하게 된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배심원의 대표로는 독립운동가이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조문기 선생이 맡았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 이사장은 ≪나는 한평생 친일청산에 매진해왔다. 친일청산은 나의 과제이자 우리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다≫며 민간인으로서, 민족의 이름으로 조선일보를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당부했다.

스크린쿼터폐지운동을 통해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온 명계남씨는 이번 민간법정에서도 큰 활약을 할 예정이다. 추진위 운영위원장을 맡아 경과보고에 나선 명계남씨는 ≪절대권력인 조선일보가 버티고 있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올 수 없다≫며 민간법정에 동참한 이유를 밝히고 경과보고에 들어갔다.

≪시민연대가 민간법정을 준비해오다 반통일 행위에 대한 제안으로 통일연대가 동참하고 이후 민변까지 합세해 민간법정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또한 구체적인 역할로서는 언론홍보를 시민연대가, 인터넷사이트 제작에 통일연대, 민변은 장전과 판결문을 만들고 통일연대, 시민연대가 기소장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전범재판에서도 판사로 참여한 바 있는 김승교(민변) 변호사는 이번 민간법정을 최대한 법정형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1월 30일 있을 민간법정에는 민변 통일위원회와 언론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며 공동판사단 및 수석판사 3인, 공동검사단 및 수석검사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 변호인단(이는 조선측에 제한하는 형태로 하되, 조선측의 반응여하에 따라 변동 있음), 증인,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50여 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다.

김 변호사는 법정 운영에 대해 ≪통일연대, 시민연대의 사이트를 통해 고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고발인단은 민간법정 검사단을 거쳐 조선일보반민족반통일행위로 기소된다. 기소된 내용으로 민간법정이 개최되며 증언, 변호 등 법정심리를 진행, 배심원 심리 및 판정을 통해 최종판결을 한다≫며 전반을 설명했다.

한상열(통일연대 대표)목사의 기자회견을 마무리로 행사는 마쳤으며 조선일보를 찢는 상징의 식도 곁들였다.

한편, 자리를 같이한 이종린(범민련남측본부)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 자리를 보면서 50년 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정 당시의 분위기를 느꼈다≫며 ≪50여 년, 해방 당시 우리 민중의 힘으로 반민특위를 만들었듯이 이번 역시나 힘을 모아 조선일보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라고 심경을 피력했다.



백영순 기자
2001년 12월 18일 ©2001 Unews

학생회장들 기지회견 갖고 한총련이적규정철회 등 촉구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0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총련과 학생연대회의소속 전국 60여개 대학 총학생회장당선자들은 12월 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97년이후 계속된 한총련이적규정은 대학내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실종시키고 대학생의 사회참여자체를 불법화함으로써 학생운동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학생운동을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한총련이적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뒤 민주당과 한나라당사를 항의방문하고 한총련대의원수배철회, 한총련이적규정철회와 활동의 자유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대학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학생들이 이같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이적규정철회 등을 주장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총련은 이땅의 백만청년학생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적인 대표조직으로써 출범한후 오늘까지 *** ***** *** ***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애국단체입니다.

한총련의 강령과 활동선언문에서 ******************사활적 요구인 자주민주통일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총련은 이같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총련은 반미투쟁의 선봉대로써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자주화투쟁에서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기수가 되어 앞장에서 투쟁하고 있으며 민중권리와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투쟁에도 동참해 그들을 크게 고무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총련이 해온 활동은 모두 민족과 민중을 위한 의로운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언제나 한총련을 미더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총련과 같은 훌륭한 학생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의 빛나는 활동과 업적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한총련을 당치않게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불법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한총련의 활동을 범죄시하며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국은 한총련 ****해도 **하고 체포구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나라가 많고 학생단체도 많지만 한국에서처럼 의로운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를 불법시하며 탄압하는 나라는 없으며 또 한총련처럼 활동에 제약을 받는 학생단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반민주정권이고 파쇼독재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써 자주민주통일운동,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을 말살하려는데 그 범죄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당국은 반**적이고 야만적인 한총련탄압을 중지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조속히 철회할뿐 아니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당국이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며 탄압하는 조건에서 청년학생들은 완강한 투쟁으로 한총련의 합법화와 활동의 자유를 쟁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 국민들은 한총련의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해 피흘리며 투쟁하는 청년학생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당국의 반한총련책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당국이 전 한총련의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2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구지방법원 ****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위반협의로 ******기소된 한총련 6기 의장인 손준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당국은 그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가입해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고 하면서 이같은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사법당국의 이같은 행위는 한총련말살을 노린 또 하나의 비열한 ***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총련으로 말하면 이땅의 백만학도를 대표하는 합법적 청년학생조직으로써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그가 청년학생들의 신뢰를 받으며 6기 한총련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것은 참으로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벌인 활동 가운데서 사법당국이 문제시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 이적표현물제작으로 말하면 이 땅의 자주화와 민주화,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것으로써 극구 찬양받아야 할 매우 의로운 활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중에게 있어서 자주민주통일보다 더 사활적인 과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이 한총련조직에 대해 이적규정운운하며 한총련간부들의 정당한 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한총련의 의로운 활동을 범죄시하는 사법당국의 이같은 입장과 태도는 선행 독재자들의 한총련말살책동과 일맥상통한 것으로써 *****될수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선행 독재자들은 역사적으로 한총련말살책동을 악랄하게 벌여왔습니다. 그것은 한총련출범식이 있을때마다 전투경찰을 내몰아 탄압을 가하고 한총련간부들에 대한 수배와 체포, 구속소동을 ****벌인 사실들이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법당국이 6기 한총련의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 역시 이러한 책동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의 화해와 통일분위기가 ***고 있으며 남북공조로 통일의 문을 열어가려는 지향이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외면하고 여전히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이같은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사법당국이야말로 선행독재자들의 반국민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처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반역집단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선행 독재자들의 말로에서 보여주듯이 민의를 등지고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만을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법당국은 이같은 행위가 초래할 파국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6기 한총련의장에 대한 징역형을 당장 취소하고 그를 석방하며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들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속학우석방투쟁 힘있게 벌이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0일~11일



날이 감에 따라 청년학생들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이 횡포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26일 수원지법은 결혼식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한 한총련 전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는 파쑈폭거를 자행했습니다. 파쑈당국의 이러한 책동을 우리 어찌 용납할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애국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파쑈당국의 탄압에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번엔 《구속학우석방투쟁 힘있게 벌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안당국이 파쑈적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수많은 청년학생들을 연행, 구속하고 있어 각계민중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올해만도 수많은 애국학생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했습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건 공안당국이 역사적인 6.15남북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와서까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무고한 학생들을 철창속으로 끌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날이감에 따라 청년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월 8일 전남지방경찰청이 남총련 제10기 의장인 최종은씨를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한 건 그 하나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공안당국의 이같은 탄압만행은 시대의 요구로 보나 청년학생들의 기상으로 보나 도저히 용납못할 범죄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에로 나아가던 민족자주통일의 기관차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반통일세력의 반북대결책동으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민중으로 하여금 반미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투쟁에 더욱 분기해 나설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현실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반미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투쟁의 선봉에 서서 과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대세의 흐름이나 겨레의 통일염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지극히 정당하고 의로운 투쟁으로써 온 민족의 찬양을 받으면 받았지 결코 탄압의 대상으로는 될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통일을 위해 활동한 수많은 애국학생들을 철창속에 가두어놓고 온갖 박해를 가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각에도 의로운 활동을 벌인 청년학생들을 연이어 구속, 수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의에 투철하고 투쟁에서 용맹한 우리 청년학생들이 공안당국의 파쑈적 탄압책동을 그대로 놔둘수 있겠습니까. 청년학생들은 공안당국의 파쑈적 탄압에 반격을 가하고 구속된 학우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서야 할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청년학생들은 날로 횡포해지고 있는 공안당국의 학생운동탄압과 무고한 학생들을 체포구속하여 고통을 주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적 행위를 폭로규탄하는 대민홍보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대자보게시와 유인물배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한총련을 비롯한 민주운동단체들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공안당국의 행위를 각계민중속에 널리 알려주도록 해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공안당국의 탄압에 반격을 가하고 구속학생들을 석방하기 위한 실천투쟁도 힘있게 벌여야 할겁니다. 청년학생들은 구속학우석방, 공안탄압중지, 수배해제,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철회 등의 구호를 들고 합법적 투쟁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한 투쟁방법과 전술을 능란하게 구사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건 실천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 곧 구속학우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면서 이 투쟁을 구속학우석방투쟁과 밀착시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이 오늘의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각계민중과 연대해서 단합된 힘으로 경찰의 탄압에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면해서 공안당국의 탄압중지와 생존권쟁취, 집시법개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과 전농 등 민주운동단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그에 동참해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안당국의 탄압을 저지하고 구속학우들을 석방하며 민주화투쟁의 열풍을 더욱 높여야 할겁니다.

≪안녕 113≫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열려



≪우리가 어머니들의 보랏빛 수건을 벗겨드리도록 합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주최로 15일 오후 6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열세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안녕 113≫의 사회를 본 명계남(영화인)씨는 이렇게 외쳤다.

≪안녕 113≫ 공연은 최광기, 명계남씨가 사회를 보고 우리나라, 김종서, 이은미, 전인권, 크라잉넛, 안치환과 자유 등이 출연해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또한 성우 양지운씨가 집총을 거부해 1년 6개월째 수감되어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6월형을 선고받은 심재춘씨의 아내 이문희씨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각각 낭독했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에 여러 차례 출연했던 문성근(영화인)씨는 우리 안의 국가보안법 문제를 담은 영상 ≪안녕 113≫의 나레이터를 맡았다.

영상 ≪안녕 113≫은 간첩신고 번호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113을 통해 국가보안법과 국가주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국가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사람답게 살 권리임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의 공연을 마무리하면서 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압법 폐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자 사회자 명계남 씨는 ≪우리가 어머니들의 보랏빛 수건을 벗겨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연은 관객과 출연진들이 호흡을 함께 하면서 양심수 석방이라는 한결같은 의지를 확인했으며 올 한 해 동안의 지친 심신을 풀어내는 자리가 되었다.

매년 공연을 마치면서 ≪안녕 국가보안법≫을 기원하고 다음해 공연은 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은 올해도 다시 ≪안녕 국가보안법≫, ≪안녕 113≪ 외침을 이 자리에 함께 한 5천여명의 가슴에 새기며 막을 내렸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17

강정구교수 직위해제안 철회하라(통일연대)

동국대학교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및 학교 정관규정에 따른 조처라며, 재판계류중인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안을 교수 임면권을 가진 재단 이사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세력과 공안당국은 2001 민족통일대축전을 참관하고 북한 유적지를 방문한 강정구 교수 만경대 방명록 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색깔칠을 해대며, 강정구 교수를 구속수감시켰었었다. 그러나 동료교수들과 제자들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여론재판에 반발하여, 농성을 비롯하여, 구속 10여일만에 2천여명의 자필석방탄원서 법원 제출, 대안수업, 석방기원 3천배등 석방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었다. 마침내 강정구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동료교수들과 학교제자들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학교 제자들은 강정구 교수가 다시 교단에 서는 것에 기뻐하며, 강정구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었다.

그런데 지난 12일 동국대학교가 형사사건으로 재판계류중이라는 이유로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는 강정구 교수를 다시 교단에 서게 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왔던, 동료교수들과, 학생들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 할수 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양심적 학자, 양심적 교육자로서 학문활동과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학계와 대중,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강정구 교수를 직위해제하려는 것은 양심적 학문활동과 교육활동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처사라 할수 있다.

또한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안은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으로 이미 사문화되고, 폐지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학교권력이 다시금 강정구 교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만경대 방명록 구속사건만큼,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안으로서, 진보적 학문탐구의 장인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하겠다.

즉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학교권력을 통한 국가보안법 적용,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인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01년 12월 14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동국대는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안을 즉각 철회하라(전노련 자통위)

지난 12일 동국대학교는 소위 ≪만경대 방명록≫ 파문과 관련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판 계류중인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안을 재단 이사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강정구 교수는 올 해 평양에서 열렸던 ≪2001 민족통일대축전≫에 민간인의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참가, 대회를 참관하고 북한 유적지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분단 역사 55년만에 최초로 이루어진 대규모 남북공동행사를 통해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 반통일 세력들의 광란적인 색깔 공세에 의해 범민련 인사 6인과 함께 구속되고 말았었다.

동국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및 학교 정관 규정에 따른 조처를 이유로 직위해제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굳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학교측이 내세우는 형사사건이란 것이 무엇인가?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으로 이루어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이미 사문화되고 만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이 한 양심적 지식인을 직위해제하려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이 과연 어떤 법인가! 인간의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몬 법이 아닌가!

동국대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안은 이러한 건학이념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전민족 대단결과 민족대화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에도 반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동국대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12월 15일
전국노점상연합 자주통일위원회

계속되는 당원구속, 진보정치 탄압 중단하라(민주노동당)

지난 12월 6일 오전 우리 당 중랑 지구당 정명아, 금수경 당원이 각각 출근하던 중 경찰청 보안 수사대 소속 형사들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다. 혐의는 지난 99년 민주노총 집회에서 소위 이적표현물을 배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이에 덧붙여 정명아 당원이 8·15 통일행사와 관련하여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로 ≪사회주의 사상유포≫를, 금수경 당원이 지난 2월 대우자동차 집회에 참가했다는 글로 ≪집시법 위반≫을 각각 추가했다.

시기마다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아무 죄없는 사람들을 잡아넣는 공안기관의 모습은 과히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 할 만 하다. 얼마나 구속사유가 없었으면 2년 전의 일을 빌미로 삼았겠는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추가된 혐의인데 이를 통해 공안기관이 일상적으로 홈페이지를 검열하고 구속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대체 요즘 정부에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만 하면 모두 잡아 가둘 것인가. 우리 당은 이번 당원 구속 사태를 보며 김대중 정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인식이 얼마나 저열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가 아직도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 지속적으로 양심수와 공안사범을 양산하는 것은 바로 김대중 정부가 아닌가. 김대중 정부는 즉각 구속된 두 당원을 비롯한 양심수를 석방하고 반인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우리 당은 계속되는 당원구속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1년 12월 11일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하라(민주노동당)

지난 12월 17일 1시에 입대를 앞둔 오태양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살생과 생명존중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적으로 살고자 하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태양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후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에서 대체 봉사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국방부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특수한 안보환경 등을 내세워 대체복무제 수용 불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견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나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 4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권리이며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의무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번 오태양씨의 선언은 병역거부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안보환경에 놓인 대만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 개인의 종교·양심상의 이유로 총을 들 수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사회봉사의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은가.

해마다 50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감옥행을 택하고 1600여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현실은 양심의 자유를 현실이나 실정법으로 재단하려는 바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 당은 병역거부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옹호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시급히 민간봉사제도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18일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산하라

김대중 정부는 작년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국회에서 부결된바 있는 온라인 등급제를 ≪인터넷 내용 등급제≫라는 이름으로 지난 11월 1일자로 시행령에서 다시 부활시켰다. 이번에 시행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 등급제라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주관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는 올해만 해도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 동성애자 커뮤니티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퇴와 가출을 토론하는 [아이노스쿨] 등 노동자-민중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 공간을 폐쇄한 바 있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인터넷의 국가 검열 기관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바로 이 검열기관에서 등급기준을 정하고 ≪전자 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표시제≫를 정통윤이 배포하는(혹은 이후 자본가가 배포할) 차단 소프트웨어와 같이 작동할 경우 노동자-민중이 접근・공개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 공간은 사전에 무차별적으로 차단된다. 그러므로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현행 헌법을 위반하는 ≪사전 검열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가 명백하게 위헌적인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집권 전반에 걸쳐 자행된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인터넷을 무기로 확대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막고, 아울러 자율적 소통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다양한 자율성 확대와 연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올해 온라인 시위까지 불법화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청소년 보호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면 청소년 정서에도 좋지 않는 억압적 법률인 인터넷 등급제와 국가 검열 기구인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입법방향은 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자-민중 스스로 민주적 토론을 구성케 하고, 정부의 인터넷 정책에 개입하여 통제할 있게 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은 보호할 대상이 아닌 이 세상을 변혁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힘은 노동, 사회단체의 장기간에 걸친 단식을 통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철회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국가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를 해체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1.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폐지하라!
2. 국가 검열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를 해체하라!
3.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01년 12월 14일
노동자의 힘

정보통신검열반대 문화제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새로운 모색

전국연합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은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운동 등 각계 운동의 지도자들과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대표들이 정례적인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1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신관) 2층 중강당에서 ≪격변하는 정세 민족민주전선운동의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국연합 10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세길(전국연합) 편집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오종렬 상임의장은 지난 10년간의 전선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 ▲전선운동과 정당운동의 분리 대립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대중조직이 전선의 중심에 서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전국연합이 전선체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강력하고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국연합은 역사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마칠 수 있다고 오종렬 상임의장은 밝혔다.

오종렬 상임의장은 6. 15공동선언 이후 격동하는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 조국 건설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완수하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진보정당)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국연합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강화 ▲2002년 양대선거에 대한 대책 ▲2002년의 대규모 정치 투쟁 등의 실천을 통해 강력한 민족민주전선과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이러한 실천을 위한 각계 운동의 지도자, 민주노동당과 함께 정례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오종렬 상임의장은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정광훈(전농) 의장, 허영구(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각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종린 의장은 8. 15해방 이후 전선체 운동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전선체운동은 노. 농. 빈 그리고 학생조직이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연합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대중이 가맹단체로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를 주축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기했다.

권영길 대표는 오종렬 상임의장이 제안한 전국연합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선체 구성 제안과 민주노동당이 제안하는 정치. 사회단체, 진보적 인사를 포괄하는 민주노동당 재창당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며 전선체와 정당이라는 대립적 관계를 넘어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영길 대표는 민중연대 강화와 새로운 전선체 강화에, 그리고 민주노동당 재창당 사업에 전농이 함께 하고 또한 중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광훈 의장은 준비해온 전선체 운동과 정당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그림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다.

정광훈 의장은 구조적 모순에 의해 현재는 외세와 국적없는 자본에 대한 각계층 민중과의 전선이 형성돼 있으며 모든 각각의 전선은 자주, 민주, 통일의 주 전선체로 모여야 하며 전선과 당은 모두 정치투쟁이라고 정리했다.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선체 조직인 전국연합이 기층민중에 대한 조직방침이나 조직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함께 민주노총이 전선 조직에 대한 고민이 지극히 낮다는 두가지 고민의 지점을 밝히면서 현재 정당과 전선체 강화에 있어서 민주노총은 표면적인 결합은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에는 출발과 준비자체가 아직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토론의 과정에서 오종렬 상임의장은 노동자를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결의와 각오를 덧붙였다.

또한 오종렬 상임의장은 전국연합이 ≪9월 테제≫를 통해 정당 건설을 결정한 사항을 놓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계적 통합이라는 비판적 여론에 대해 전선=정당은 성립할 수 없다고 정리하고 전국연합은 기계적 통합이 아닌 강령적 통합을 얘기하는 것으로, 즉 전선과 정당의 공통부분을 통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로 이날 토론자들은 조직의 결정사항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오종렬 상임의장의 발제 내용과 그 취지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연합이 전선체 운동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아쉬움을 남겼으며 전선체와 정당의 위상, 민주노총과 전농 등 대중조직의 역할, 시민단체들의 인입, 정치적 입장 차이의 극복, 각 조직의 밑바탕에서부터 합의를 도출 등 많은 과제들이 제기되어 이후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14

≪완전개방형 예비선거제≫와 ≪통합진보정당의 창당≫을 제안하며

임기를 1년여 남겨놓고 있는 김대중 정부는 이제 완전히 실패한 정부가 되었다.

대통령은 총재직까지 내던지고 당내에는 특별대책위까지 구성하여 개혁과 쇄신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지만, ≪부정≫과 ≪부패≫ ≪무능≫과 ≪부실≫에 실망할대로 실망한 국민들은 이미 집권당에서 등을 돌린 지 오래이다.

민주당의 추락에 반사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한나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집권야당의 태도마저 보이고 있지만, 반개혁적 극우보수적 반통일적인 입장과 노선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걸머지기에는 참으로 암담한 세력이다.

한마디로 나라의 근본을 세워야할 정치는 이미 실종되었고,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빈부 격차의 심화 속에 민생은 파탄이 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2002년 양대선거는 나라의 존망과 다수 국민의 생존이 걸린 소중한 선택의 순간이고, 우리 정치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모든 진보세력의 대단결로 2002년의 양대 선거를 돌파하고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온전한 정치지형을 만들기 위해, 온 국민과 모든 진보세력 앞에 ≪2002년 양대선거와 진보정당 재창당에 관한 방침≫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다가오는 2002년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고자 하는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공동 정책의 개발, 공동 명의의 사용, 공동 후보의 선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선거연합전술을 구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특히 지방선거의 공동대응을 힘있게 하기 위하여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당원과 참여를 원하는 모든 단체 회원 및 일반국민이 후보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예비선거≫를 실시할 것을 각 단체와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행해 왔던 ≪2002년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더욱 확대해서 모든 민주 진보진영의 지방선거 공동대응기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우리 정치의 발전과 국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완전개방형 예비선거≫가 가능하도록 현행선거법을 즉각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이러한 지방선거 공동대응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은 모든 진보세력을 망라하는 ≪통합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다.

셋째, 통합진보정당 창당의 일차적 과제로 사회당과의 통합을 제안하며, 아울러 모든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노동, 사회, 시민단체와 개인들에게 통합진보정당 창당 작업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제 단체들과의 정치협의와 지역별 순회간담회, 각계인사의 진보정당 참여 선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창당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이러한 성과를 모아 2002년 1월 말 경 구체적인 창당시점을 확정하고 제 단체의 대표와 각계 진보인사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한 후 통합진보정당을 창당할 것이다.

넷째, 다가오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한 대표성을 갖는 범진보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 ≪완전개방형 대선 후보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한다.

2001년 12월 14일
민주노동당



간부인선 둘러싸고 내부진통 앓는 ≪한총련≫

현직중앙간부 재선은 의장 동의없이도 가능

한총련의 내부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무성한 논의끝에 무위로 돌아간 ≪간부 충원≫ 안건에 이어 이번에는 2002년 신임 ≪간부 인선≫ 문제가 내부진통의 핵심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이번 신임 간부인선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은 ≪한총련의장의 간부인선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장의 추천과 동의가 없이 간부로 인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선거 시행 세칙≫ 해석으로 외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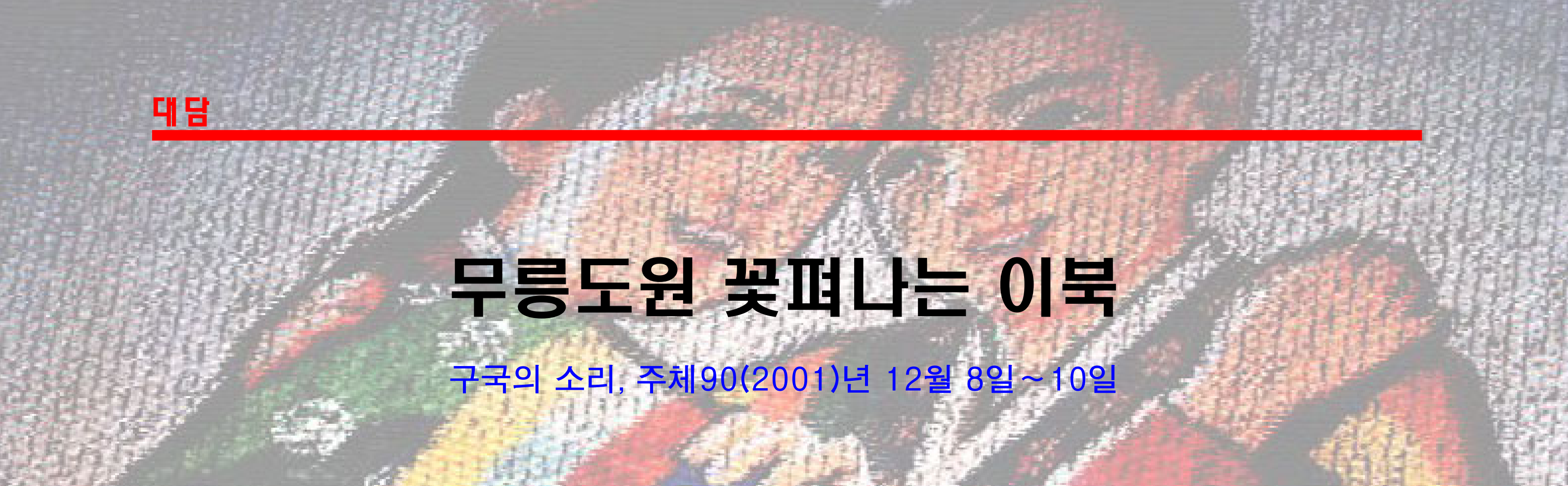
이러한 논란은 12월 초 열린 21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현직 한총련 중앙간부는 ≪소속부서장의 추천만 있으면 차기년도 간부로 인선될 수 있다≫는 안에 6명의 찬성으로 표결결정 됐다.

이로서 경인총련 의장이 한총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주장한 ≪한총련 중앙간부들중 자신이 부서장일 경우 자신이 스스로를 추천해서 차기년도 간부로 인선될 수 있고, 위원 및 국원 간부들은 위원장, 국장의 추천만 받으면 차기년도 간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총련 간부로 활동하고 지금은 사회단체 상근자로 활동중인 김상중(가명, 32세)씨는 ≪시행세칙에 매몰된 단어해석 논의가 한총련 강령, 규약, 체계와 질서 전 조직운영에 적용되는 ≪의장중심의 통큰단결의 정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간부인선은 12월내에 열릴 차기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간부인선은 내년 3월말-4월초에 열릴 ≪대의원대회≫전까지 임시체계를 이끌 간부들에 대한 선출이기에 2002년 10기 한총련 중앙간부인선은 3월 정기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최종확정된다.

최범수 기자
2001년 12월 14일 ©2001 Unews



무릉도원 꽃펴나는 이북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8일~10일

이상향의 건설 그것은 정녕 꿈일까요. 우리는 꿈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꿈과 같은 일이 현실에 있었으면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인류는 자자손손 이어오면서 꿈꾸어온 이상사회실현에 대한 역사적 대안으로 이북의 사회주의를 떠올리고 있고 **김정일**영도자님과 이북민중이 건설해가는 강성대국 그 궤 위에서 빛나는 이상향의 내일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첫 순서로 ≪무릉도원 꽃펴나는 이북≫ 이런 제하의 대담 마련했습니다. 윤정원씨 모셔볼께요.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최근 이북에서는 강성부흥의 자랑찬 새역사 펼쳐나가는 민중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 환희와 낙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노래 ≪강성부흥아리랑≫이 창작되어 널리 애창되고 있는데요. 들어보셨죠?

윤정원 : 그럼요. ≪무릉도원 꽃펴가니 흥리로다 아리랑 제힘으로 세워가니 멋있도다 아리랑≫.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노랫말도 그렇고 선율과 곡조도 민족의 자긍심 넘쳐나죠.

사회자 : 노래 ≪강성부흥아리랑≫과 함께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요즘 이남에서도 화제거리에 자주 오르는데요. 강성대국이라는 슬로건을 높이 세우고 전역을 무릉도원으로 꾸려가는 이북민중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에 관해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무릉도원, 많은 것을 생각케 하는 말인데요. 무릉도원이라는 전설에서 신선이 살았다고 하는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피는 고장이고 착취와 억압이 없고 사람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상향을 이르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죠. 이상향이란 인류가 지향하고 염원하는 이상적인 고장이나 나라, 또는 그런 세계를 말하죠. 무릉도원이라는 말의 뜻을 새겨보노라면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강성대국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의미 깊게 떠오릅니다. 영도자님께서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민중들이 세상에 부러움없이 사는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사회 강성대국이라고 하셨거든요.

사회자 : 영도자님의 그 말씀을 새겨보면 강성대국과 무릉도원이 한 화폭으로 안겨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릉도원은 사람들이 예로부터 그려보던 것이고 강성대국은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무릉도원이 전설속에 있었다면 강성대국은 지금 이북 땅위에 건설되고 있는 거죠. 온 나라 강산에 인류가 그처럼 바라던 무릉도원으로, 낙원으로 꽃피우는 건 민중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염원아니였어요?

윤정원 : 어느 초 여름날이였는데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날 아침 걸음을 멈추시고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한 고장의 풍경을 정겹게 바라보셨어요. 주석님께서는 만면에 미소를 가득 담으시고 일군들에게 산세 좋은 고장을 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지 아는가고 하시면서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이상사회의 대명사처럼 되게 된 유래를 전해주는 옛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주석님께서는 옛이야기에 심취되어 있는 일군들에게 착취와 압박이 없고 만민이 평등하고 화목하게 사는 그런 이상사회는 오랜 세월 실현될수 없는 꿈으로만 남아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민중의 오랜 숙원과 이상을 현실로 전환시켜 만민이 행복하게 사는 민중의 낙원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지요. 돌이켜보면 주석님의 한평생이야말로 민중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바친 노고와 헌신의 한평생이였어요.

사회자 :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그 길위에 오늘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거룩한 자국 수놓아 가시는 것 아닙니까?

윤정원 : 네, 그러시죠. 3년전 설날이였어요. 1999년 설날이였으니까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리에 발사해서 온 세상을 들었다놓은 가운데 맞이한 설날이였죠. 뜻깊은 그 설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주석님의 생전의 뜻이였고 웅대한 목표였다고, 우리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먼 앞날의 일도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자 : 강성대국건설이 결코 빈말도 아니고 먼 앞날의 일도 아니라는 건 세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북의 정치사상적 위력, 일심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것이죠. 세상사람들이 인정하듯이 북의 정치사상적 위력과 군사적 위력은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볼수가 있어요. 이제 경제건설에 힘을 다해서 모든 공장, 업소들이 제 궤도에 올라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언제든지 경제강국의 지위에도 올라설수 있어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와 지방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제건설과 민생문제해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고 계시죠.

사회자 :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진군의 나날에 북에서는 벌써 경제 여러 부문이 활기를 띠면서 좋은 징후들이 연이어 나타나 민중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까?

윤정원 : 그에 따른 사례는 많은데요. 지난 7월만해도 서흥군 버만리를 찾으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풍요로운 벌과 고기떼 욱실거리는 양어장,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푸르른 산기슭에 아담한 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마을과 발전소를 둘러보시며 정말 만족해하셨어요. 영도자님께서 서흥군 버만리를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이라 불러주셨는데요. 이곳은 조선로동당의 농촌건설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단위들 중의 하나인거죠.

지난 9월 영도자님께서 인민군군인들의 지원하에 무릉도원으로 전변된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셨을때 온 민중이 감격으로 설레였는데요. 옹근 하나의 군이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노력으로 무릉도원으로 전변된 겁니다.

사회자 : 정말 이북민중의 앞날 얼마나 창창한 겁니다. 전설속의 무릉도원이 현실로 눈앞에 꽃펴나는 것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죠?

윤정원 : 그래요. 오랜 세월 이상으로만 그려왔던 무릉도원을 이북 전역에 펼쳐가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영도, 정말 영도자님은 인류가 수백수천년 바라면서도 실현할수 없었던 세기적 염원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전설적 영웅, 행복의 위대한 창조자세요.

사회자 :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판문점충격 - 시대의 영원한 메아리

정치평론가 장동진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7일~9일



민족의 피와 한이 서리서리 어려있어 온 겨레가 그토록 아픈 마음으로 떠올리는 판문점, 동시에 최대위험지역으로 한 발자국이 조심스러운 판문점, 바로 그곳에 통일의 태양,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1996년 11월 24일 불시에 찾으셨던 겁니다. 민족의 소원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가림 없으신 장군님의 통일의지에 하늘도 감격한듯 흰 안개가 뿌옇게 밀려와 장군님을 안전하게 모셨다는 전설같은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정치평론가 장동진씨의 ≪판문점충격 - 시대의 영원한 메아리≫ 박진수씨, 김혜정씨가 보내드리지요.

5년전 11월 24일, 그날 아침 판문점일대는 흰안개에 덮였었다. 바로 그 흰안개 속에서 누구도 예측못한 충격이 일어났다.

김정일장군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셨던 것이다.

판문점은 초긴장지역이다. 근 반세기 북, 미군 쌍방이 직접 총구를 맞대고 있는 전초선이며 대결과 분열의 상징이다.

이곳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께서 몸소 시찰하신 것은 전무후무한 충격사변이었다. 메가톤급 충격에 삼천리가 끓고 겨레는 격동했다. 행성이 움씰거리고 인류는 경탄했다.

그때로부터 5년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날의 충격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판문점충격≫은 백두위인의 천출명장상을 역사에 새기는 선군시대의 진군소리이며 통일영수의 위인상을 만방에 전하는 통일시대의 나팔소리이다.

새 세기 첫 11월 24일을 맞아 21세기 승리와 통일의 메아리로 낭랑히 울려 펴지고 있는 ≪판문점충격≫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선군시대의 메아리

위인이 남기는 자욱마다에는 시대의 장엄한 화폭이 담긴다. 영장의 진군길에는 시대의 의지와 기상이 비낀다.

김정일장군의 판문점시찰은 선군시대의 위력을 과시한 역사의 장정이었다.

오늘 세계의 정치가들과 군사가들이 하나같이 격찬하는 이북의 선군시대는 장군의 탁월한 영도에 의해 열려졌다.

선군정치는 장군께서 창조하신 특유의 정치방식이며 선군영도는 그분께서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비범한 영도술이다.

돌이켜 보건대 선군영도의 첫 자욱을 떼시던 **김정일**장군의 어깨위에는 얼마나 무거운 민족운명의 중하가 실려있었던가.

그때 북이 처한 상황은 전대미문의 역경이었다. **김일성**주석의 서거를 틈탄 미국의 대북압살공세는 극에 이르렀다. 서방연합의 봉쇄와 질식고사작전, 연이은 자연재해는 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말그대로 천겹만겹의 시련이었다. 3일, 아니면 3개월, 길어서 3년안에 북이 동유럽사회의 꼴이 된다는 ≪333붕괴설≫도 떠돌았다.

북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민족과 인류의 눈길이 북으로 쏠리고 있던 바로 그때 **김정일**장군께서 선군영도의 장검을 높이 치켜드셨다. 총대로 국난을 타개하고 국권과 존엄, 사회주의를 지키는 준엄한 원정의 길에 오르셨다.

장군의 선군길에는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었다. 위험한 지역, 안전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전선중의 최전선인 판문점도 서슴없이 찾으셨다.

호시탐탐 북침의 기회만을 노리는 무수한 총구들이 집중된 판문점에 **김정일**장군께서 몸소 나오시리라고 누가 상상인들 했겠는가. 적진으로부터 불과 10여m 지점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이북 국방위원회의 작전도가 펼쳐질 줄 그 누가 감히 추측할 수 있었겠는가.

주한유엔군사령부로부터는 ≪판문점이 어디라고 **김정일**최고사령관이 나오겠는가. 최고사령관이 아니라 어느 부대사령관이 아닌가. 눈을 뻔히 뜨고도 어떻게 **김정일**최고사령관이 다녀 간 것도 모르는가. 음파탐지기들은 다 멎었는가≫라는 추궁이 빗발쳤다.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비서장은 **김정일**장군의 판문점시찰은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더 무서운 충격, 발밑에서 원자탄이 터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고 비명을 질렀다.

미국에서는 ≪**김정일**지도자는 정말 결심이 단호하고 타격이 무자비한 장군임이 틀림없다. 그분은 미국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세계 유일의 강경정치지도자이시다. **김정일**지도자와 대적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역사에는 군수뇌들의 전선시찰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장군의 판문점행처럼 한번의 시찰로 적진을 일대 혼란과 공포에 몰아 넣은 적은 없었던 줄로 안다. 과시 하늘이 내신 빨치산의 아들 **김정일**장군께서만이 일으킬 수 있는 일파만파의 충격이라 하겠다.

되새겨 볼수록 첨예한 대결장에 거연히 서시어 허장성세하는 천만대적을 발아래로 내려다 보신 장군의 담력과 기상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판문점에 나래친 장군의 서릿발기상은 그대로 북침을 노린 침략자들에게 내리는 철추였다. 어떤 침략도 북의 영해와 영공, 영토를 0.01mm도 침범할 수 없다는 엄숙한 경고였다.

그 철추에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친 미국의 전면적인 대북압살공세가 물거품이 됐고 그 경고에 북침을 노린 ≪5027-98≫은 휴지로 변했다.

≪판문점충격≫은 호국의 장엄한 포성, 멸적의 뇌성되어 천하를 울렸다. 우주공간을 난무하던 ≪북붕괴론≫은 ≪북건재론≫으로 바뀌고 북위기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승승장구하는 북에 대한 경의와 찬사로 이어졌다.

20세기 승리의 신호탄으로 되었던 ≪판문점충격≫이 오늘은 21세기 승전곡으로 높이 울리고 있다.

북이 대미대결에서 연전연승하는 비결은 장군의 선군영도를 받는데 있다.

옛 군사가들은 ≪전쟁의 승리는 장막안에서 마련된다≫고 했다.

그러나 장군께서는 선군영도의 길에서 민족존엄의 수호와 평화의 전략을 구상하시며 승리의 화살표를 그으신다.

장군의 선군영도의 위력은 그분의 군시찰을 통해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최근 수년간 장군께서 진행하신 군현지시찰은 275차에 걸쳐 570개 단위에 14만 5천800여리의 노정에 이른다고 한다.

단순한 시찰이 아니다. 쪽잠과 줴기밥으로 날과 달을 보내시고 휴식날, 명절날 가림없이 이어지는 숭고한 헌신의 행로이다. 눈보라, 비바람을 맞으시며 전선에서 전선에로, 외진 섬초소에서 깊은 산중초소에 이르기까지 병사들을 찾아 걷고 걸으시는 위대한 사랑의 원정이다.

장군의 시찰로 이북의 군력은 철통같이 다져지고 국력이 강화된다. 군민 모두가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용사로 자라고 이북 전역이 철옹의 성새로 구축된다.

한, 미군장병들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군시찰은 이북군에게 승리의 보검을 안겨준다. 장군께서 주신 만능의 무기를 가진 이북군에는 승리가 있고 금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는 지옥의 열쇠만 차례진다≫고 공포에 떨고 있다.

군부의 수뇌들은 장군의 쉼없는 군시찰에 코를 꿰어 끌려다니며 어쩔줄 몰라하고 있다. 장군의 군시찰보도가 나올 때마다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긴급군지휘관회의가 소집된다. 전방부대들에 A급 비상이 걸리고 인민군의 동향파악에 관한 지급명령이 하달된다. 휴전선 GP초소들에 주한미군에게만 도입됐던 위성추적시스템까지 보급하고 장군의 군시찰상황과 그 진의를 파악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아무리 머리를 싸쥐고 고심해도, 최신장비를 갖춘 위성정탐수단을 총발동해도 장군의 신묘한 지략 앞에서는 소경막대기짚기이다.

군부당국자들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신출귀몰전술에 맥이 빠진다. 동에 계신다 하여 그쪽을 주시하면 어느새 서에 나타나시고 공군부대에 시선을 집중하면 이미 해군부대에 가계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비명이 아니다.

자고로 싸우지 않고 꾀로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전이라 했다. 전장에 군사를 투입하지 않고 지략으로 적을 주저앉게 만드는 장군을 명장으로 일러왔다.

김정일장군은 위대한 선군영도로 싸우지 않고 백전백승하시는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시다.

김정일장군을 모셔 이북은 세계유일의 초대국도 쥐락펴락하는 강국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 행성에서 우리의 존엄과 이익을 해치려는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로 만들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며 미국

의 도발을 단호히 격파, 분쇄하고 있는 나라는 오직 이북뿐이다.

비위에 거슬리면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이건 관계없이 융단폭격을 가한다, 지상군을 파견한다 하면서 강권을 휘두르고 못하는 짓이 없는 미국이지만 북에는 총탄 한발도 날리지 못한다. 부시행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북을 걸고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떠들고 ≪테러지원국≫, ≪생화학무기 개발국≫의 감투까지 씌우며 북을 다쳐보려고 몸살을 하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는 것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영도가 아니었다면 한반도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틀림없이 발칸반도나 아프가니스탄보다 먼저 전란에 잠겼을 것이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장군의 선군영도를 받는 무적필승의 강군이 조국수호의 총검을 굳건히 틀어쥐고 있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친 핵탄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의 선군정치덕에 이남민이 무사하다. 북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해 주니 이 땅의 정치인들이 우쭐렁거리고 기업인들도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닌다. 그토록 고마운 북을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천벌을 맞을 짓이다. 북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은인이고 보호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말 **김정일**장군의 선군영도의 덕은 우리 이남민이 더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러니 온 국민은 위대한 선군영도로 평화를 꽃피우시는 **김정일**장군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한다. 대통령도 야당의 총재도 대기업의 회장도 허리굽혀 절을 올려야 한다.

금세로 따진다면 반북호전광들이 북에 일방적으로 퍼준다고 입이 째지게 떠드는 ≪남북협력자금≫에 비기겠는가. 민족의 생존을 보호해 주는 북에는 천으로 만으로 퍼준다고 해도 아까울 것 없다. 남의 땅을 타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며 민족을 해칠 전쟁준비만 하는 주한미군에게 꼬박꼬박 섬겨바치는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유지비는 물론 수조원의 국방비도 전쟁장비구입비도 다 북에 내야 한다. 권력다툼에만 탕진하는 정치자금이나 큰 나라의 배만 불려주는 기업들의 이윤도 모조리 북에 보내야 한다. 그런다 해도 북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선군정치의 나라 이북에 미래도 운명도 맡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족이 평화롭게 살고 존엄을 빛내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나는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선군영도로 승리해온 북은 21세기에도 호국의 성새, 불패의 보루로 위상떨칠 것이라고 믿는다. ≪판문점충격≫은 선군시대의 승전곡으로 영원히 메아리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통일시대의 메아리

위인의 자욱따라 시대가 열린다. **김정일**장군의 거룩한 걸음걸음은 통일시대를 펼친다.

≪판문점충격≫은 겨레의 가슴 속에 장군의 절세의 위인상을 더욱 뜨거이 새겨주었다. 장군이시야말로 진실로 통일을 바라시고 통일성업을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영수이심을 전하는 역사의 선언이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만을 생각하신다. 조국은 하나로 뭉쳐져야 살고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보신다. 그래서 장군께서는 민족의 고통, 겨레의 불행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험지도 사지도 가림없이 찾으신다. 참된 애국은 통일을 위한 투쟁 속에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 주신다.

어린시절 분단조국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는 주석을 뵈오며 민족통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새기신 장군이셨다. 그래서 장군께서는 주석의 통일노선을 실현하시고저 불면불휴의 활동을 벌이셨다. 주석을 통일단상에 모실 날을 하루빨리 당겨 오시려 심혈을 바치셨다. 그러한 장군이시기에 주석께서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가신 것을 그리도 통분해 하셨다. 주석의 영전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통일위업완성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셨다.

김정일장군의 판문점행은 그 맹세를 굳히시는 뜻깊은 시찰이었다. **김일성**주석의 통일유훈을 기필코 성취하시기 위한 큰 걸음이었다.

장군께서는 판문점을 찾으신 날 제일 먼저 ≪**김일성** 1994. 7. 7≫이라는 글발이 새겨진 주석의 친필비부터 돌아보셨다고 한다.

장군께서 세우도록 하신 천연화강석의 친필비에는 주석에 대한 그분의 숭고한 충정이 응축되어 있다.

그 역사의 기념비 앞에서 장군께서는 7천만 겨레에게 통일을 선물하시려 한평생 마음쓰신 주석의 불멸의 통일업적을 가슴뜨거이 회고하셨다. 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하셨다. 주석의 통일경륜과 동포사랑으로 후대들에게 통일조국을 기어이 안겨 주자고 절절히 말씀하셨다.

장군의 그 말씀은 통일을 갈구하는 겨레의 심장을 쿵쿵 울려 주었다.

이남민중은 ≪**김정일**영도자님은 **김일성**주석의 유업을 하루빨리 이루시려 판문점을 시찰하셨다. 그분께서는 판문점을 다녀가셨지만 서울, 부산, 제주도를 다 돌아보셨다. 온 이남민을 다 보살피셨다≫고 목메어 했다.

판문점에 남겨 놓으신 **김정일**장군의 숭엄한 모습, 통일의 큰 자욱은 민족의 어버이의 불멸의 초상으로 새겨져 있다. 거기에서 민족은 통일영수의 위대한 겨레사랑, 조국사랑을 받아안고 있다.

얼마전 11월24일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임진각을 찾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장군의 판문점시찰의 의미를 되새기며 통일의 의지를 굳혔다.

≪통일연대≫의 이성호씨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장군께서 판문점에 오셨던 5년전 그날을 잊을 수 없다며 ≪**김일성**장군께서 보천보를 치시어 절망 속에 몸부림치던 겨레에게 광복재생의 희망을 안겨 주시던 그때가 생각난다. **김정일**영수께서는 분단의 광란이 극도에 이르렀던 때에 그 위험한 판문점에 나오셔 통일의 새 희망을 안겨 주셨



다≫고 감격해 했다. 기독교의 한 장로는 ≪11월24일은 장군께서 통일을 예언하신 ≪통운의 날≫≫이라며 눈물지었고 통일운동가들은 ≪우리 운동의 일대 도약을 불러온 날, 통일조국창조의 자신감을 백배케 한 날≫이라고 격정을 터쳤다.

이 땅에서 펴지고 있는 ≪흰안개전설≫도 각계에서 애창되고 있는 ≪판문점의 흰안개≫라는 노래도 ≪판문점충격≫이 통일을 안아온다는 민심의 표출이다.

오실 때는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신 줄은 마음으로 이남이 다 알았습니다
…
판문점의 그날에 통일을 맞은듯
안개로 피던 마음 꽃으로 피렵니다
…

≪판문점충격≫의 파문은 세월과 더불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김정일장군은 빈말을 모르신다.

장군께서는 판문점에서 다지신 맹세를 실천하셔 통일의 새 지평을 활짝 여셨다.

판문점을 시찰하신 그 대용단으로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셨고 6.15공동선언의 큰 열매도 주렁지게 하셨다.

장군에 의해 판문점에서 정립된 조국통일 3대헌장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았다. 새 세기 통일의 좌표인 6.15공동선언의 자자구구에도 어려있고 7천만의 합창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자주통일의 구호에도 맥박치는 3대헌장이다.

평양의 창공에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우뚝 솟아 빛나고 있다. 탑에는 남과 해외동포들이 보낸 7백40여개의 기증돌이 보석처럼 빛을 발하고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를 높이 드신 장군을 따르는 7천만의 마음이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어 탑은 그 어떤 분단광풍에도 끄떡없는 통일의 표대로 되고 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통일과 단결의 대문도 더욱 넓혀 주셨다.

장군에 의해 반세기여에 걸쳐 덧쌓여진 불신과 대결, 반목의 얼음장이 녹아내리고 화해와 협력, 교류와 단합의 물결은 굽이쳐 흐른다. 평양과 금강산에서 남, 북, 해외가 함께 하는 통일잔치가 열리고 민족대단결의 함성이 천지를 진감한다. 통일축구, 통일농구의 응원가가 높이 울리고 예술사절들의 통일노래 또한 그치지 않는다.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이 남북을 오가며 통일열기를 드높인다.

≪11.24충격≫이 일으킨 열풍은 참으로 통일시대를 열고 겨레를 자주통일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 있다.

분열주의세력은 ≪판문점충격≫에 전율하고 있다. 5년전의 충격은 분단추구세력에게 ≪콘크리트장벽이 금시 무너져 버리는듯≫한 공포를 안겼다. 그들의 반통일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바빠맞은 그들은 체면이라도 세워보려고 부랴부랴 오두막같던 ≪자유의 집≫개축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자유의 집≫을 아무리 새로 지었어도 ≪분열의 집≫의 오명을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판문점은 더 이상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 아니다. 통일과 단결의 상징이다.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판문점을 찾지만 분단세력은 그곳을 두려워한다. 일신의 안일과 영달을 추구하고 외세의존과 분열로 기생하는 사대매국의 무리들은 판문점에 나올 염을 못낸다.

통일의 바람은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북에서 분다. 분단세력이 아무리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고 ≪30년후 통일설≫과 ≪상호주의≫를 고창하며 6.15공동선언이행에 차단봉을 내려도 그것은 통일풍앞에 흩날리는 낙엽일 뿐이다.

김정일장군께서 계시는 북이 있어 21세기 통일이 온다. 자주통일의 기둥도 북이 세우고 대단결의 마당도 북이 닦는다. 통일조국의 청사진도 북이 펼치고 통일복락의 미래도 북에서 연다.

7천만 겨레의 마음은 **김정일**장군께로 쏠린다. 5년전의 ≪판문점충격≫은 ≪2천년의 위인충격≫으로 이어졌고 21세기의 ≪위인열풍≫으로 승화되고 있다.

장군의 초상사진들이 대학가와 주택들에 정중히 모셔지고 ≪존경하는 지도자의 혁명활동약력과 세련된 지도자상≫이 TV와 인터넷에 공개리에 소개된다. 장군의 원전들이 합법적으로 배포, 탐독되고 **김정일**장군의 사상토론회가 공공연히 진행된다.

김정일장군은 통일의 태양으로 민족의 절대적인 숭앙을 모으신다.

새 천년대가 시작되던 첫 아침, 수천명의 각계층 민중이 판문점이 바라보이는 임진각에서 ≪새해 태양맞이행사≫를 거행하고 북녘을 향해 삼가 세배를 올렸다. 조국통일을 위해 심로하시는 **김정일**장군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였다. 통일부흥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장군께서 부디 안녕하시옵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장군만을 통일의 구성으로 받들 충정이 담긴 큰 절이었다.

김정일장군은 정녕 겨레에게 통일을 안겨 주실 위대한 태양이시다.

참으로 통일의 태양이 삼천리를 밝게 비쳐 민족이 하나될 그날이 온다. ≪판문점충격≫은 통일시대의 영원한 타종되어 울린다.

판문점은 천출위인을 모신 자긍심과 통일의 희망을 심어주는 역사의 땅이다.

판문점은 어느 분이 충정의 화신이시고 진정한 애국자이신가를 전하는 증견자이다.

김정일장군께서 찾으셨던 판문점에서 온 민족은 무궁번영할 통일강성대국의 내일을 본다. 세계의 정상에서 영광떨칠 태양민족의 창창한 앞날을 본다.

이제 머지 않아 판문점에는 **김정일**장군의 성스런 업적을 전하는 불멸의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그 이름도 빛나는 **김정일**장군의 업적기념비는 그 이름 영원한 **김일성**주석의 친필비와 더불어 세세년년 찬연한 빛을 뿌릴 것이다.

≪판문점충격≫은 시대의 영원한 메아리로 세기를 이어 울려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해자 미국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0일~12일

지금 광범위한 국제사회는 한반도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임기수씨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는 건 우리 민족의 지상의 과제일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세인들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하기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북침도발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강도높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아나아메리인디언행동운동 총서기는 성명에서 부시행정부가 지난해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우리 민중의 통일열기와 한반도의 평화와 완화의 분위기에 걸맞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대신 오히려 의도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제반 사실은 주한미군이야말로 침략군이고 평화의 교란자이며 조선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만약 미제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애호민중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한사코 방해해나서면서 정세를 긴장시키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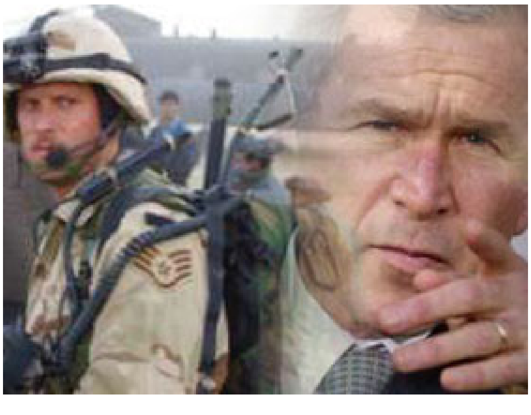
마다가스까르투쟁연합당 총서기는 담화에서 미국이 있지도 않은 이북의 핵문제, 미사일문제를 걸고 그 누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사회주의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이남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무력을 당장 철수해야한다.≫

영국 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중앙위원회는 성명에서 광범한 국제사회계의 지지와 성원속에 추진되어 오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정은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북에 대한 부당한 강경정책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강경정책은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되는 타격목표로 선정하고 기어이 성사시켜보려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수립책동으로 하여 세계평화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강경정책의 목적이 이남에 자기 침략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있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도 없다.≫

네팔신문 ≪피플즈 리뷰≫지는 ≪미국은 안보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오늘 한반도는 아시아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정세가 긴장하고 전쟁위험이 제일 큰 지역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안보를 구실로 한국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한국과 함께 북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에서는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이 진실로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바란다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가리아신문 ≪라보티 제스키 데스크비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오류≫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초에는 소련을 견제한다는 미명하에 그리고 냉전이 종식된 지금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것이 미국의 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진짜 속셈은 다른 것이다. 미국의 역대집권자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이 미국의 전반적 이익에 중대한 위협으로 되기 때문에 그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자기의 세계제패전략으로부터 동북아시아에서 이남뿐 아니라 전 한반도를 자기의 지휘하에 넣으려는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것이다. 미국은 이미 50년대초에 북을 침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것이 참패로 끝난후에도 휴전협정을 유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쿠바의 ≪트렌스 라티나≫통신은 ≪미국은 한반도통일의 암초≫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된 남북공동선언이행에서는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더욱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정세를 평양상봉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세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평화와 화해, 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선언이행에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나라 절반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덮씌우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미국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의 더 큰 항의와 규탄을 받기 전에 이땅에서 자기의 군대와 핵무기들을 즉각 철수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백두의 령장

김송남

하늘가 아득히
흰 눈발을 휘뿌리는
백두의 도도한 기상
그이모습에 비껴 있어라

수해 천리
운해 천리
노을 붉은 해돋이를 펼치는
백두의 장엄한 아침
그이의 미소에 흘러 넘쳐라

넓으신 한품에
우리 수령님의 군대를 받아 안으신 그이
위훈 많은 그 군기의 숲을
승리의 한길에 더높이 휘날려 오신
백두의 령장 **김정일**동지 !

태여나신 곳이 백두성지여서
하늘끝에 빛나시는 그이의 예지인가
걸음마 떼신 곳이 백두대지여서
산악의 거침 없는 폭풍 같으신
그 담력인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
첩첩시련 주저없이 맞받아
단신으로 헤쳐 오신분
원쑤놈들의 제재와 봉쇄바람을
선군령도의 걸음발로 짓뭉개시며
걸으신 길은 천리던가 만리던가

어버이수령님의 백두산전법 그대로
최고사령부를 최전연에 두시고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선
또 한차례 판가리대전을
총포성없이 승리에로 이끄셨거니

분계선초소를 찾아
군항과 파도 세찬 섬초소를 찾아
전사들과 침식을 같이 하신 친근한 어버이
쌍안경도 자동보총도 안겨 주신 그 걸음은
자신의 마음속에 늘 안고 계시는 그 백두산을
우리 군대의 가슴속에 높이 세워 주신
력사의 걸음걸음…

선군령도 그 길우엔
백두산의 예지가 빛발쳤다
백두산의 슬기와 담력
백두산의 기상과 용기
백두산바람이 더 세차게 노도친 그 길우에
얼어 붙었던 시련의 강설은 녹아 내려
내 조국, 이 민족은
운명의 새봄을 두번 다시 맞이했다…

이 세기를 지켜
더욱 서슬 푸르러진 백두의 총대여 !
이 조선을 떨치며
더 높이 솟아 오른 백두의 웅자여 !
정녕 그 모든 빛나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그이께서 안아 올리신 것

그 마음 언제나
백두령봉에 높이 세우시고
우리 군대를 이끄시기에
예지에 빛나시고
지략과 담력에 넘치시는
백두의 령장--그이는 천출명장 !

아, 우리 군대의 최고사령관
위대한 **김정일**동지 계시여
조선의 존엄으로
21세기의 희망으로
수령님의 백두산이 오늘에 더높이 솟아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뿌리고 있어라 !

월간 ≪통일여명≫ 창간 한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6.15주간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편집인 공동축하문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24호)

어느덧 월간 ≪통일여명≫이 창간된 지 한돌이 흘렀습니다.

한국청년주체주의자들의 인터넷기관지를 지향하며 창간된 월간 ≪통일여명≫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였으며 새로운 인터넷선전의 전형을 창조하였습니다.

창간호부터 12호에 이르는 월간 ≪통일여명≫은 그 자체로 편집국동지들의 헌신과 투쟁의 역사이며 새로운 인터넷잡지의 전형으로 됩니다.

≪국가미사일방어체계≫로부터 시작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 ≪통일전선≫, ≪진보정당≫ 등 다양한 분야의 각종 자료집 또한 편집국동지들의 혁신과 전진의 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단시간에 방대한 분량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과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을 발간한 사실은 통일여명 편집국동지들의 충실성과 헌신성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인터넷선전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는 적지 않은 성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그간 동지들의 투쟁에 의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자료들을 비롯하여 전위당의 노선정책자료, 각종 주체사상자료들이 전산화되어 인터넷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고난의 행군과정에서 파괴되거나 유실된 자료들이 동지들의 주동적이고 목적의식적인 헌신투쟁에 의하여 거의 복원되었으며 전산화되어 인터넷과 시디로 배포된 만큼 향후에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그간 동지들의 투쟁과 모범에 의하여 경애하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영세불후의 주체사상, 전위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인터넷선전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보편화되어 자연스러운 일로 되었습니다.

동지들이 검색과 학습에 용이한 한글파일편집형식을 새롭게 창조하고 이를 민족민주단체의 자료게시판에 정상적으로 게재하며 광범히 전파함으로써 인터넷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전방법이 개척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간 동지들이 보여준 혁명적인 투쟁기풍은 한국청년주체주의자들의 기개를 널리 과시하며 운동대오에 하나의 활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동지들이 보여준 선전에서의 기존상식과 금기를 깨는 대담성과 혁신성, 최단시간내에 방대한 선전자료집을 발간한 속도성과 전투성, 구속과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각오와 투지는 고난의 행군이 남긴 여진을 일소하고 통일혁명의 승리를 낙관하는 일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여명≫ 편집국의 지난 활동을 통하여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사상사업은 혁명투쟁의 선행공정이라는 사상론과 주체의 혁명적 붓대중시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은 올해 하반기를 혁신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담한 투쟁목표를 수립하며 이를 기어이 달성하는 투지를 보여주었으며 지금은 더욱 높은 투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말겠다는 열화 같은 투쟁의지에 넘쳐 있습니다.

≪통일여명≫의 창간이 통일혁명의 여명을 알리는 신호였다면 그 창간 한돌은 통일혁명의 전진과 도약을 알리는 계기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여명≫ 편집국이 지난 기간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혁명기풍, 백두의 혁명기치를 높이 들고 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통일여명≫ 한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동지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12월 7일
서울

통일여명 1주년 기념 자료집





주체의 명곡파일을 게재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통보 (편집국 보도 25호)

주체의 혁명음악파일을 인터넷전국연합과 인터넷민주노동당에 게재합니다.

이 음악파일들은 주로 조선중앙방송이 자정 전후 시간대에 방송하던 노래와 연주들입니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주로 담은 이 혁명송가들이야말로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불멸의 명곡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은 이 30곡의 주체명곡파일을 ≪통일여명 창간 한돌≫ 기념으로 공개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경애하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선전으로 되는 한편 그간 청년주체주의자들의 인터넷잡지 월간 ≪통일여명≫을 아껴주신 애독자동지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표시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정치를 선군정치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음악정치라고도 합니다.

주체혁명사야말로 노래로 시작하여 노래로 전진하며 노래로 승리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동지들은 이 주체명곡파일들을 사색과 학습, 투쟁 시에 일상적으로 감상함으로써 생활과 활동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할 수 있는 또하나의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음악파일공개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12월 7일
서울

*** 제목(노래 20곡 연주 10곡)**

1. **김일성**장군의 노래
2. **김정일**장군의 노래
3. 위대한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4. **김일성**대원수 만세
5. 수령님 따라 천만리
6. 조선의 별
7. 반일전가
8. **김정일**화
9. 친근한 그 이름
10. 청원
11. 기다렸습니다
12.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13. 최고사령관동지 건강을 축하함
14.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
15. 맹세한다 우리는
16. 승리의 열병식
17. 조선은 하나다
18. 내나라 제일로 좋아
19. 우리의 소원은 통일
20. 반갑습니다

연주

1. 최고사령관동지 건강을 축하함
2.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3. 장군님만 건강하시면
4. 축원의 꽃보라
5. 전사들은 영광드리네
6. 승리의 열병식
7. 우리를 보라
8. 우리 모두 영웅이 되자
9. 반제투쟁가
10. 조선은 하나다

주체 90, 12월 9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기술자 이모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4일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과 관련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냈습니다.

전국철도노조는 당국이 철도와 가스 등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려는데 항의해 7일 여의도 국회청사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1월 30일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교육재단에서 진행됐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이 주체사상을 21세기 인류가 들고 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법원 쁘뜨리끄 브뤼노변호사와 포르투갈조선친선협회는 지난 3일 자국 주재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를 보내 일본당국의 조총련 탄압책동을 규탄했습니다.

주체 90, 12월 10일

관광업에 종사하는 대구의 최모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시는 문화복지시책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그분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제주 4.3봉기 당시 미군장교들이 봉기진압에 나선 한국 군, 경을 직접 지휘했다는 증언이 당시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미고문관들한테서 나왔습니다.

한총련과 학생연대회의소속 전국 60여개 대학 총학생회장당선자들은 12월 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연말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등 지역에서 강도와 살인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반복작업 등에서 비롯되는 통증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에 시달리는 직업관련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일본총리와 이시하라 히타로 도꾜도지사에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일본시민과 한국인 등 280명은 7일 일본국가와 총리 등을 상대로 73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꾜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일본당국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규탄하고 조총련조직을 앞장에서 고수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중앙집회가 7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총련조직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을 견결히 단죄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결정에 따라 조총련중앙상임위원회 조령현부의장을 책임자로 하고 조총련 도꾜도본부와 니시도꾜본부, 재일조선인인권협회 대표들로 구성된 항의단이 7일 일본 경찰청을 찾아가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주체 90, 12월 11일

울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애국노동청년회 회원 박모씨가 이북을 노동자천국으로 높이 찬양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기독교청년회관에서 남북공동선언역행하고 국가보안법철폐반대하는 미국과 한나라당규탄 11차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기지안에 대규모 아파트건설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건 서울시장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내 아파트건설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건 시장은 10일 서울시 의회에서 용산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 민족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기본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군숙소용 아파트건립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근본취지에 부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법상 단독주택이나 3층이하 연립주택 등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고건시장은 아직까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협의해 온 적은 없으나 이같은 입장을 국방부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계 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자료실 현판식 및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명왕의 무덤이 지난 10월 도굴돼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마다 2만명가량의 군인이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고 탈영자도 1천명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세균성 이질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7년여동안 모은 돈을 탕진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해 암매장한 20대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미군2사단 **사격장에서 포탄사격 도중에 불이나 밤새 근처 야산으로 계속 번졌습니다.
미군이 화재를 방치한데다 소방장비도 없이 미군이 통제하는 군사지역인 것으로 해 인차 진화작업을 벌이지 못해 많은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0일 담화를 내고 일본에서 또다시 이북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납치의혹≫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조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파쇼적 폭거를 규탄하는 평양방직공장 노동자들의 집회가 진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평양산원에서 300번째 세쌍둥이가 출생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미국에서 18개에 달하는 인권단체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이유로 사법부를 재판부에 고소했습니다.

주체 90, 12월 12일

서울 시내에서 활약하는 ≪민족사랑회≫의 명의로 제작한 **김정일**장군님 칭송 노래집 ≪태양찬가≫가 시내 각계 민중속에 널

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8일 성명을 발표해 4.3제주봉기진압의 주범인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서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서울 용산기지내 미군 아파트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각계가 서울 용산기지안에 아파트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단죄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 이모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당국은 장교가족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내에 있는 낡은 건물들을 헐고 앞으로 10단계에 걸쳐 8층짜리 아파트 20동 1,066가구를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 1단계로 96가구를 내년에 착공해 2004년에 완공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의도를 드러낸 것으로써 주한미군철수와 기지반환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행위로 분격을 금할수 없다. 이들의 행위는 말이나 협상으로써는 주한미군기지를 돌려받을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 국민이 단결해 기지반환투쟁을 완강히 벌여야 한다.≫

소파개정국민행동의 한모씨는 용산기지내에 미군전용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려는 주한미군의 책동에 분격을 금할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 어지간한 1개 **기업과 맞먹는 외국군사기지가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 이것은 한미간의 주종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민족적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하는 미군기지를 철페해야 하며 우리땅은 반환돼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미군의 오만무례한 작태에 분격만 할수 없다. 기지반환투쟁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

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 강모씨는 ≪미군기지때문에 우리 국민이 입는 피해는 모두다 열거할수 없다.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용산기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거기에 장기적으로 눌러앉아 있을 심산으로 미군가족전용 아파트단지까지 지으려고 하면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있는 미국의 태도야말로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이라 아니할수 없다. 날이 갈수록 더욱 횡포해지는 주한미군의 만행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주한미군철수, 기지반납 등 반미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은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우리땅을 반납하고 하루빨리 철수해야한다. 아울러 당국은 대미굴종자세를 버리고 주한미군기지를 돌려받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계획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용산이외의 오산과 군산 등의 기지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일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 주재로 열린 주한미군참모회의에서 용산기지이전과 아파트건설은 별개문제라며 아파트건설을 계속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주한미군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용산기지말고도 2, 3년안에 평택기지에 1,500가구, 오산 250가구, 군산에 500가구 등의 아파트를 더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아파트건설을 추진하려는 이같은 행태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결연한 반미의지를 직시하고 아파트건설책동을 당장 중지해야하며 이땅에서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73년에 중앙정보부에서 이른바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살로 발표된 서울대 법대 최종길교수가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에 의해서 타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직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고 최종길교수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지난 주 위원회에 참고인자격으로 나온 전 중앙정보부의 모 과장이 당시 함께 일했던 부하직원이 조사실 내벽에 설치된 비상계단에서 최교수를 떠밀어 절명케 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최교수의 타살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최교수가 숨진뒤 당시 중정에 의해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 현장검증조사서와 부검**서등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학살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은 분격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4부는 11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된 한총련 6기 의장인 29살 손준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12월 11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를 정치를 할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11일 오전 기독교방송창사 인터뷰에서 이회창이 감정을 함부로 말하는데 국사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예산안처리가 법정시간을 넘긴 것과 관련해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대법관출신의 이총재가 국회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중앙공공요금을 **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내년에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에서 11일 대낮에 은행에 강도가 침입해 억대의 돈을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견결히 단죄규탄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의 집회가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조총련에 대한 전대미문의 파쇼적 폭거를 감행한 일본당국을 규탄했습니다.

주체 90, 12월 13일

부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양회≫ 회원들이 지난 10일 시내모처에서 회합을 갖고 2002년 2월 16일과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기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계에서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기지안에 아파트단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소속기관에 등록하지 못한 공인회계사 10여명이 한국공인회계사본부에서 대책마련를 요구하며 시한부 철야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도 법적 부양의 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 8,0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사증세를 보이는 이질환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소속 전, 의경 95명이 설사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총련 도꾜본부대표들이 11월 28일 날조기사로 여론을 오도한 것과 관련해 아사히신문 오사카본부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2일 담화를 발표해 이른바 북의 ≪납치의혹≫소동을 일으키면서 대북적대시정책에 광분하고 있는 일본당국을 비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일본당국의 반조총련탄압책동을 규탄하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계급의 현장집회가 12일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11월 16일 그분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대한 마다가스까르주체사상연구조직 연합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체코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3일 프라하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12월 14일

국방부가 서울 용산미군기지내에 미군의 아파트건설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3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국내건축법과 소파협정을 고려해 토지의 특성과 건축물높이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미군아파트건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주거시설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느니 뭐니하며 기지내의 아파트건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미군당국은 용산기지내에 앞으로 10단계에 걸쳐 8층짜리 아파트 20동, 1,066가구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1단계로 96가구분을 내년에 착공해 2004년에 완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833가구, 평택 1,600가구 등 모두 3,800가구를 새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미군측이 지난 90년 용산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협의해놓고도 기지를 반환할대신 오히려 수십년이 걸릴 아파트건설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서울 한복판을 영원히 틀고 앉겠다는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대신 대구와 평택 등 미군기지에 장교들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것은 미군을 이땅에 영원히 주둔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측이 기지내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려는 태도는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무례한 태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국방부가 미군기지반환과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민의에 역행하며 미군의 아파트건설계획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비굴한 사대매국행위라고 규탄하면서 허용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용산기지내의 아파트건설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현재의 교류협력체제와 어긋날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12일에 열린 운영상임위원회에서 이북과 대규모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중단위기에 놓인 금강산관광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 통일협회와 불교통일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며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금강산관광사업은 어느 특정기업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민족적 통일사업이라면서 관광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인권주간기념성명을 내고 안기부가 지난 87년에 피살된 수지김을 간첩으로 매도하고 중앙정보부가 73년 최종길 서울 법대교수를 살해하고도 자살한 것으로 위장한 것은 비참한 인권유린행위라며 조속히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써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인원과 예산 등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며 변협도 인권위원회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경기도의 학부모시민단체는 지난 12일 학교의 신건축을 둘러싼 비리의혹이 있다며 경기도교육감과 시설공사 담당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가족 4명이 변사체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일본당국이 조총련에 대한 전대미문의 파쇼적 폭거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12월 15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페루 우앙까요주이사회에서 명예상장과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페루 우앙까요주이사회에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가 4일 일본당국의 조총련탄압책동을 규탄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이 일본당국의 조총련탄압책동을 준열히 규탄했습니다.